



한글

정답과 해설

비상교육 교과서편

중등 국어 2-2

◆ 본책 02

◆ 시험 대비 문제집 23



정답과 해설

본책



1 소통하고 공감하는 삶

[1]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08쪽

1 (1) ○ (2) ○ (3) × 2 ③ 3 관점

- (3) 소설에는 하나의 시점만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작가가 의도적으로 시점을 바꾸어 서술 관점에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다.
-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사건의 전말과 인물의 심리 등을 모두 알고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 있다.
-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의 세계는 다르게 형성된다. 따라서 서술자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표현을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를 파악해야 한다.

학습목

본문 009~025쪽

- 012쪽 미옥, 열여섯, 편지, 북한, 비명
- 015쪽 편지, 수심, 예의, 먹이
- 018쪽 갈등, 물상식, 학업, 축하, 외적
- 022쪽 엄마, 압수, 정체성
- 025쪽 아저씨, 현재, 청소년, 외로움, 일가친척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09~025쪽

- 009쪽 01 ④ 02 ④ 03 ②
- 010쪽 04 ③, ⑤ 05 ④
- 011쪽 06 '아저씨'가 북한식 시투리(북한 말투)를 썼기 때문이다. 07 ③ 08 ②
- 012쪽 09 ㄱ, ㄷ 10 ④ 11 ③
- 013쪽 12 일가 13 ③ 14 ②
- 014쪽 15 ④ 16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조선족 이주 노동자이다.
- 015쪽 17 ④ 18 아저씨는, 사람이었다. 19 ⑤
- 016쪽 20 ③ 21 미옥에게서 온 편지(여학생한테서 온 편지)
- 017쪽 22 ⑤ 23 • ㉔: '미옥'의 편지를 받음(받았다). / • ㉕: '미옥'의 편지를 압수당함(압수당했다). / 빼앗김(빼앗겼다). 24 ②
- 018쪽 25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 26 부모님이 다투실(싸우실) 때 27 ⑤
- 019쪽 28 ③ 29 ① 30 아저씨의 존재
- 020쪽 31 ② 32 ㄷ, ㄹ
- 021쪽 33 ①, ③ 34 죄인 35 ⑤
- 022쪽 36 빈자리, 막막함 37 ④

023쪽 38 ④ 39 말투

024쪽 40 ④ 41 ①

025쪽 42 '아저씨'의 외로움 43 ③

- '나'는 이 글의 주인공으로서, 작품의 서술자에 해당한다.
 - '나'는 '미옥'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 '나'는 '미옥'이 사는 동네 앞을 지나면서 혹시나 '미옥'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자전거 페달을 좀 더 천천히 밟은 것이다.
 - '나'는 설레는 기분을 좀 더 오래 누리고 싶기도 했고, 밤에 이불 속에서 조용히 보고 싶은 마음도 커서 '미옥'의 편지를 바로 열어보지 않았다.
 - '한 남자'는 '나'가 처음 보는 사람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인물이며(ㄴ),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심인물이다(ㄷ).
- 오답 풀이** ㄱ. '한 남자'가 등장하는 부분은 글의 '발단' 부분으로, 결말을 암시하고 있지는 않다.
ㄷ. '나'는 '한 남자'를 이날 처음 보았다.
- (바)에서 '나'는 "야야, 너 어데로 갑네?"라고 말하는 '아저씨'의 북한 말투를 듣고, 처음 보는 '아저씨'를 간접으로 오해한 것이다.
 - '나'는 과수원에서 만난 '아저씨' 때문에 '미옥'의 편지를 받고 좋았던 기분이 사라진다. 그리고 '아저씨'가 집까지 따라오자 무서워서 비명까지 지른다.
 - (바)에서 '아저씨'는 '나'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는데, 이로 보아 '나'가 누구인지를 확신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연변에서 오신 그분이신가요?"라는 말로 보아, '엄마'는 '아저씨'가 올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ㄷ). 그리고 "저는 저어 라오닝성 다렌서 왔지요."라는 말에서 '아저씨'가 중국 다렌에서 왔음을 알 수 있다(ㄱ).
 - (아)에서 '나'에게 '아저씨'가 눈을 찡긍해 보인다면, 무안해진 '엄마'에게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부분으로 볼 때, '아저씨'는 스스로 없고 넉살이 좋은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시간적 배경이 현재에서 과거로,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흐름을 보이므로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순행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구성 방식이다.
② 액자식 구성은 한 작품이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지는 구성 방식이다.
④ 옴니버스식 구성은 몇 개의 독립된 짧은 이야기를 늘어놓아 한 편의 작품으로 만드는 구성 방식이다.
⑤ 피카레스크식 구성은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가 같은 주제나 인물을 중심으로 짜인 연작 형태의 구성 방식이다.

12 (자)에서 '아저씨'는 '나'에게 자신을 '일가(一家)'라고 소개하며 한집안 사람임을 알려 주고 있다.

13 (자)에서 '나'는 '아저씨'와 '아버지'의 혈육 상봉에 대해, '사진이라도 찍어 줘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냉소적 태도를 보인다.

14 '엄마'의 얼굴에 수심이 깔린 이유는 '아저씨'의 방문이 달갑지 않고, '아저씨'가 오래 머무를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15 (카)를 보면, '엄마'는 처음에 도자기로 된 조그만 술잔을 준비했다. 그러나 '아저씨'의 요구로 '나'에게 맥주 유리컵을 가져오게 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⑤ '나'는 속으로 '미옥'의 편지를 읽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저씨'의 말을 듣는 척하고 있다.

② '엄마'는 자리를 뜨려고 과일을 가져오겠다고 하였지만 '아저씨'의 만류로 못 가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다.

③ '아버지'는 밥을 달라고 울고 있는 소 때문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16 (타)로 보아, '아저씨'는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 노동자임을 알 수 있다.

17 '나'가 냉큼 일어나 우사로 간 것은 빨리 소먹이를 준 뒤, '미옥'이 보낸 편지를 읽기 위해서이다.

18 (파)의 마지막 문장에는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나'의 부정적인 평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19 (하)에서 '아저씨'가 마치 일꾼처럼 매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나'의 집에 계속 머물고 싶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 '아버지'는 손님이자 일가친척인 '아저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잘 모시고자 한다. '아버지'와 '아저씨'가 어색한 사이인지는 (저)를 통해 알 수 없다.

21 '엄마'가 '미옥'에게서 온 편지를 빼앗고 돌려주지 않아 '나'와 '엄마' 간에 갈등이 유발된다.

22 '엄마'가 '나'에게 편지를 돌려주지 않은 이유는 이성 교제로 '나'의 공부에 지장이 생길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23 '나'의 기분이 최고가 된 것은 '미옥'의 편지(답장)를 받았기 때문이고, 최악으로 곤두박질친 것은 '미옥'의 편지를 읽지도 못하고 '엄마'에게 압수당했기 때문이다.

24 (터)에서 '엄마'는 '나'와 편지를 두고 갈등하고 있는데, '나'와 사이가 멀어지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지는 않다.

25 (머)에서 '나'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고 싶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싸우는 상황이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어 한다.

26 ㉠의 '이럴 때'는 부모님이 싸울 때를 가리킨다. (버)에서 '나'는 이러한 부모님의 싸움으로 자기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27 (머)에서 '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힘이 없었을 뿐이지 어렸을 때도 지금처럼 사태를 분간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28 '아버지'는 '엄마'와 다투면서도 '아저씨'에게 가져다줄 매실주와 안줏거리를 챙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아버지'가 한 말 중 '갈취'라는 표현을 취소하라는 '엄마'와 못 하겠다는 '아버지'가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다.

④ '아버지'가 끝까지 '갈취'라는 말을 빼기를 박듯이 중얼거리며 나가자 엄마는 한숨을 몰아쉬며 분노하고 있다.

⑤ '엄마'와 '아버지'의 다툼이 심해지고, '엄마'가 흥분을 가라앉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은근히 겁이 난 '나'는 슬그머니 마루로 나간다.

29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면서 '아저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싸움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저씨' 때문임을 말하면 근처에 있는 '아저씨'가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0 (저)에서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갈등하는 밑바닥 감정에 분명 '아저씨'의 존재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1 '나'가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못 들은 척한 것은 '아버지'가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데 대한 반감 때문이다.

32 이 글의 주인공인 '나'는 미성숙한 서술자로서 순수한 관점에서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전달하고 있다(ㄷ). 또한 주변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 주관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ㄹ).

오답 풀이 ㄱ.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 시점은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만 주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주제를 직접 드러내는 길래는 수필이다.

ㄴ. 인물의 심리나 사건의 속사정을 전부 알고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33 (티)에서 '엄마'가 집을 나간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자, '아저씨'가 이제 그만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무언의 행동으로 볼 수 있다.

34 (피)에서 '아저씨'는 '엄마'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껴, '아버지'에게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며 자책하고 있다.

35 '나'가 ㉡처럼 생각하는 이유는 '엄마'가 편지를 늦게 돌려준 탓에, '미옥'의 편지를 읽지 못해서 '나'와 '미옥'의 관계가 저절로 끝나 버렸기 때문이다.

36 (고)에서 '나'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엄마'가 없는 빈집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기도 하고,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것에서 오는 아쉬움과 막막함 때문이기도 하다.

37 ㉢는 '엄마'와 '미옥'으로 인한 '나'의 한숨 소리이고, ㉣는 '나'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현재 상황의 답답함을 느껴 '아저씨'가 낸 한숨 소리이다. 따라서 ㉣는 적절하지 않다.

38 (도)에서 '아저씨'는 자신이 한국에 오기 전 북선(북한)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었다고 하였다.

39 '나'와 '아버지'가 '아저씨'의 말투를 따라 하는 것은 어느새 아저씨와 함께 지내는 것에 익숙해지고, 심리적인 거리도 좁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40 (모)에서 ‘나’가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한 것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때문이다. 이는 ‘아저씨’가 ‘나’의 마음속에 인상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41 (보)에서 ‘아저씨’에 대해 묻는 ‘나’의 말에 ‘아버지’는 “누구?”라고 답하는데, 이로 보아 ‘아버지’는 ‘아저씨’를 이미 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2 (소)에서 ‘나’는 자신 때문이 아니라 ‘아저씨’의 외로움이 전해져서 눈물을 흘린다고 하였다. 이는 타인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슬퍼할 수 있다면 어른이 된 것이라는 국어 선생님의 말씀과 연결된다.
- 43 이 글의 제목 ‘일가’는 가족들로부터 일가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저씨’를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글에서 ‘엄마’와 ‘아버지’는 ‘일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009~025쪽

- 010쪽 (1) ○ (2) ○ (3) ×
 014쪽 (1) 경황 (2) 본적지 (3) 고조되다
 016쪽 (1) 농치고 (2) 우 (3) 몰상식
 020쪽 (1) 해빙 (2) 유아무야
 023쪽 (1) 포획한 (2) 복선 (3) 분명히
 024쪽 (1) 부득불 (2) 시속

학습 활동

본문 027~031쪽

- 이해 답장, 갈취, 비판, 일가
 적용 꽃, 순수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27~031쪽

- 027쪽 01 ④ 02 ②
 028쪽 03 ‘아저씨’가 우리 집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다.
 04 현대 사회의 모습 05 ③
 029쪽 06 ①, ④ 07 ③
 030쪽 08 ③ 09 ‘민지’: 꽃 / 말하는 이: 풀, 잡초
 031쪽 10 ②, ④

- 01 ‘아버지’와 다른 사진으로 집을 나간 것은 ‘엄마’이다. 이 때문에 괴로워하던 ‘아저씨’는 ‘엄마’가 돌아오던 날 ‘나’의 집을 떠나게 된다.
- 02 ‘나’가 ‘미옥’에게 편지를 쓴 날(지난주 월요일)은 이 글의 시작 부분인 ‘나’가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은 날(봄 방학을 한 날)보다 앞선다. ①, ③, ④는 봄 방학을 한 날이고, ②는 ⑤보다 먼저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은 ②이다.

- 03 이 글에서 ‘엄마’와 ‘아버지’의 다름은 ‘아버지’가 ‘갈취’라는 표현을 써서 발생했지만, ‘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아저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04 이 글의 제목 ‘일가’는 일가친척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고 부각한다.

- 05 이 글의 ‘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이므로,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 드러낸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열여섯 살 사춘기 청소년이다.
 ② ‘나’는 이 글의 주인공이자 내용을 전개하는 서술자이다.
 ④ ‘나’는 ‘아저씨’를 처음 보았을 때는 싫어했지만, 성장하면서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그리움을 느낀다.
 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쓰였다. 즉 이 글은 서술자인 ‘나’의 시선에서 작품 속 인물인 ‘엄마’와 ‘아버지’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름대로 추측해서 서술한다.

- 06 ‘나’는 미성숙한 청소년 서술자로, 인물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거나 작품의 주제를 직접 전달하기보다는 순수한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 07 <보기>의 서술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역에서 떠나는 ‘아저씨(일가)’를 만났으며, ‘아저씨’로 인해 고생을 겪었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서술자는 ‘엄마’임을 알 수 있다.

- 08 이 시의 화자는 ‘나’로서 시인 자신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⑤ 이 시의 화자는 일상에서 만난 아이 ‘민지’와 경험한 일, 그에 따른 성찰의 내용을 그려 내고 있다.
 ② 이 시에는 ‘잘 잤니’, ‘그게 뭘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 등과 같은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④ 이 시에는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 등에 대한 ‘민지’와 시적 화자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 있다.

- 09 이 시에서 ‘질경이, 나싱개, 토끼풀, 억새’와 같은 식물들을 ‘민지’는 ‘꽃’이라고 말했고, 시적 화자는 단순히 ‘풀’로 생각하며 ‘잡초’라고 말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 10 ‘나’가 ‘민지’에게 ‘꽃’을 ‘잡초’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는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고, 자신의 세속적인 생각이 부끄럽기도 했기 때문이다.

압축 파일

본문 032~033쪽

- ① 편지 ② 갈등 ③ 예의범절 ④ 갈취 ⑤ 간첩 ⑥ 외로움 ⑦ 결혼 ⑧ 가족 ⑨ 공감 ⑩ 잡초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34~036쪽

- 01 ④ 02 ③ 03 ④ 04 ‘나’가 좋아하는 ‘미옥’에게서 답장을 받았기 때문이다. 05 ① 06 ③ 07 ‘아버지’ 08 ④ 09 ③ 10 ② 11 ② 12 그건 잡초야

- 01 이 글은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가 일가친척 집에 방문하여 겪은 사건이 아니라, '나'의 일가친 '아저씨'가 '나'의 집에 찾아온 후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 02 '나'는 이 글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주인공의 시각에서 보고 느낀 것만을 전달할 수 있다.
- 03 (다)~(라)로 보아, '아저씨'는 불임성이 좋으며 스스로도 낙살도 좋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에서 '엄마'에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 솔직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04 **서술형** (가)~(나)로 보아, '나'는 지난주 월요일에 좋아하는 '미옥'에게 편지를 보냈고, 봄 방학을 한 날 '미옥'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05 (나)로 보아, '엄마'와 '아버지'가 다투게 된 표면적인 원인은 '나'가 받은 편지를 '엄마'가 압수한 것을 두고, '아버지'가 '갈취'라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 06 (가)로 보아, '나'는 '아저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채하면서 계속 '미옥'의 편지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 07 **서술형** 제시된 글은 '아저씨'를 형님이라 부르며 그 모습을 쓸쓸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아버지'를 서술자로 하여 쓴 것이다.
- 08 ㉠에서 '엄마'와 '아버지'는 '아저씨'가 혹시라도 들을까 봐 '아저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 그런 마음을 '아저씨'가 알아주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9 (가)로 보아, '미옥'이 보낸 답장에는 조건부로 '나'의 마음을 받아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나'가 편지를 늦게 보았기 때문에 '미옥'과의 관계는 끝이 났다.
- 10 (가)에서 '나'는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것을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아저씨' 때문에 울고 있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며,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시적 화자는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민지'의 말을 듣고 얻은 깨달음을 전달함으로써 독자의 성찰도 이끌어 내고 있다.
 ③ '민지'는 풀을 '꽃'이라 부르며 소중히 대하지만, 시적 화자는 쓸모 없는 '잡초'라고 생각한 것에서 두 사람의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다.
 ④ 시적 화자는 풀을 대하는 자신과 '민지'의 관점을 비교하여 '민지'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순수한 '민지'를 묘사하는 표현에서 시적 화자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며, 이로 인해 시의 분위기도 따뜻해진다.
- 12 **서술형** (다)의 시적 화자는 '민지'가 '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잡초'라고 말하려다가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기도 하고, 세속적인 자신의 생각이 부끄럽기도 하기 때문이다.

(2) 공감하며 듣기

학습 활동

본문 037~043쪽

이해 감정, 집중, 제사, 소극, 적극

적용 화남, 배려

학습목

본문 037~043쪽

040쪽 이해, 협력, 소극적, 적극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37~043쪽

037쪽	01 축구부	02 ⑤	03 ④
038쪽	04 ⑤	05 ⑤	
039쪽	06 ④	07 ②	
040쪽	08 소극적 들어 주기	09 ⑤	10 ①
041쪽	11 ③	12 ④	13 ②
042쪽	14 ④	15 ⑤	
043쪽	16 ②		

- 01 동생은 축구부에 들어오라는 체육 선생님의 제안을 듣고, 축구부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어 형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했다.
- 02 형은 동생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판짓을 하다가, 동생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말하였다.
- 03 상대가 조언을 구할 때는 자신의 입장보다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 감정을 고려하여 말해야 한다.
- 오답 풀이** ① 상대의 말을 집중하며 들어야 상대의 의도를 알고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다.
 ② 대화할 때는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상대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공감을 해 주면 상대가 더 편하게 말을 이어 갈 수 있다.
 ⑤ 대화할 때 상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 주면, 상대가 자신의 말을 귀담아듣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더욱 말을 잘할 수 있게 된다.
- 04 '황희 정승'은 나중에 온 사람이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대답한 것이지, 그가 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헤아려 대답한 것은 아니다.
- 05 '민재'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다. 이런 때에는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 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
- 06 ④의 내용은 '윤하'가 수학 시험이 쉬웠다고 하며, '민재'의 입장에 공감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07 '민정'은 선생님과 대화하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었고,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 내었다.

○답 풀이 ① 선생님은, '도현'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서 속상했다는 '민정'의 말을 요약정리해서 말하고 있다.

③ 선생님은 "계속 이야기해 봐."라는 말로 대화를 이끌어 가며 '민정'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④ '민정'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도현'의 성격이 어떠한지 떠올려 보면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다.

⑤ 선생님은 '민정'을 부드럽게 바라보거나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민정'에게 편안한 느낌을 주고 '민정'의 마음에 공감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

08 '소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와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하게 맞장구를 치는 것과 같은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09 ⑤는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정리하는 말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모두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10 공감적 듣기는 상대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ㄴ), 상대와 협력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ㄱ).

11 ⑥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으므로, '화남'이 적절하다.

12 버스를 타야 하는데 교통 카드가 없어서 버스를 타지 못하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당황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13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친구와 화해하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4 '역할 2'는 '역할 1'이 엄마에게 사과하도록 설득한 것이 아니라, 엄마께 먼저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15 상대를 고려하여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처한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한다. 또한 상대의 가치관을 존중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추어 믿음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6 '역할 2'는 엄마께서 자신의 생일을 잊으셔서 서운하다고 말하는 '역할 1'의 말을 요약정리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

압축 파일

본문 044쪽

① 공감 ② 심정 ③ 비판 ④ 긍정적 ⑤ 맞장구 ⑥ 요약정리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45쪽

01 ⑤ 02 동생이 말을 꺼냈는데, 고개도 들지 않고 땀을 했다. / 동생의 심정(감정, 상황, 고민)을 고려하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03 ④ 04 ④ 05 ③

01 공감적 듣기는 상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다.

02 서술형 형은 동생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으며, 축구부에 들어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동생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화를 하여 동생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다.

03 '황희 정승'이 두 사람의 말에 각기 다르게 답한 이유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04 제시된 대화에서 ㉠은 공감적 듣기 중 적극적 들어 주기의 표현이다. ㄴ처럼 상대가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하거나, ㄷ처럼 상대가 했던 말을 요약정리해 주는 것이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답 풀이 ㄱ. 상대가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돕는 말로, 소극적 들어 주기의 표현이다.

ㄷ.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격정하는 마음을 드러냄으로써 상대가 자기 생각을 편하게 말하도록 돕는 소극적 들어 주기의 표현이다.

05 '민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윤하'가 ③과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말을 해 준다면, '민재'는 위로를 받고 기분이 풀릴 것이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050쪽

01 ⑤ 02 ③

01 '부득불'은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나 마지못하여'라는 뜻이므로, 문맥상 ⑤의 내용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02 '당숙'은 아버지의 사촌 형제를 이르는 말이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051~054쪽

01 ④ 02 ③ 03 ③ 04 멀치 한 주먹과 고추장 05 ②
06 ③ 07 ② 08 ④ 09 (그 이유는) 네가 이제 아저씨의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10 ②
11 '민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 '나'가 하려던 말이 세속적인 때가 묻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12 ④
13 ② 14 ③ 15 '도현'이 쑥스러워서 아무런 말을 못 했을 수 있음을 깨달음. 16 ③ 17 ⑤ 18 ① 19 ②

01 이 글의 갈래는 소설이다. 소설 구성의 중심 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다.

02 이 글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따라서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관점에서 인물과 사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개인적인 심리를 제시한다.

○답 풀이 ①, ④ 이 글은 미성숙한 사춘기 소년 '나'의 순수한 시선으로 사건을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정보를 독자가 직접 해석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사춘기 소년의 내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서, 사건을 통해 성장하는 '나'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⑤ 이 글은 어른이 아닌 청소년의 시선으로 일기친척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간접적으로 비판한다.

03 (라)에 따르면, '나'는 '아저씨'가 떠난 이후에도 똑같이 '미옥'을 생각하지만 더 이상 그 때문에 울지 않게 된다.

04 **서술형** (다)에서 '아버지'가 챙겨 나가는 초라한 안줏거리를 통해 '아버지'가 '아저씨'를 더 이상 손님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5 (라)로 보아, '나'가 ㉠처럼 생각한 이유는 현재의 '나'는 예전과 달리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때문이다.

06 (라)에서 '아저씨'는 무투팡자를 짓고 평생 살고 싶다고 하였지만, 그곳에서 '나'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는 알 수 없다.

07 (나)로 보아, '나'와 '엄마'가 갈등하는 이유는 '미옥'이 보낸 편지를 '엄마'가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08 (다)에서 '나'는 '미옥'에게 끝종 선고를 받고 힘들어한다. 따라서 ㉠은 '미옥'과의 관계가 끝나 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다)를 통해 '엄마'가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갔음을 알 수 있지만, (다)에는 떠난 '엄마'에 대한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다)에서 '나'가 이야기한 '엄마의 소원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나'와 '미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나'가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⑤ (다)에는 '미옥'과의 관계가 끝나서 힘들어하는 '나'의 심리가 드러나 있을 뿐, '아저씨'에 대한 마음이나 '아버지'에 대한 애뜻함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교난도 서술형** (마)로 볼 때, '나'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나'가 이제는 '어떤 한 사람', 즉 '아저씨'의 외로움에 공감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평가 목표	중요 문맥의 의미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친구의 입장에서 '눈물'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쓴 경우 [상]
	✓ 친구의 입장에서 썼으나 '눈물'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 [중]
	✓ 친구의 입장에서 쓰지 않았고, '눈물'의 의미도 잘 드러나지 않은 경우 [하]

10 이 시의 1~2행으로 보아, 청옥산 기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시적 화자의 제자 가족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시적 화자는 강원도 산기슭에 살고 있는 제자의 집에 갔다가 '민지'를 만나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③ 이 시의 여조를 통해 시적 화자가 순수한 '민지'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시적 화자는 '그게 뭘데 거기다 물을 주니?', '꽃이야'와 같은 '민지'와의 대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⑤ 시적 화자는 세속적인 가치로 사물을 판단하는 자신과 달리, 순수한 시선으로 사물을 대하는 '민지'의 마음을 지켜 주기 위해 풀들이 '잡초'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11 **서술형** 시적 화자는 풀을 '꽃'으로 여기는 '민지'에게 '그건 잡초야'라고 무심코 말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고, 세속적인 자신의 생각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12 제시된 대화 상황에서 형은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형에게는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며 의사소통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13 적절하게 맞장구치기는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격려하기 기술로, 이는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④ 소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에게 관심을 드러내어 말하는 이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격려하기 기술이 중심을 이룬다.

③, ⑤ 적극적 들어 주기는 말하는 이의 말을 요약정리하여 반영함으로써, 말하는 이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4 상대를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공감적 대화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말하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평가 항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15 **서술형** '민정'은 '도현'과 친해지고 싶어서 음료수를 건넸는데 '도현'이 아무 말이 없자 우울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생님과 대화하며 '도현'이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을 고려하여 자신이 오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16 ㉠에서 선생님은 '민정'의 말을 듣고 객관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민정'이 한 말을 요약정리하며 적극적 들어 주기를 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선생님은 표정이 좋지 않은 '민정'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민정'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선생님은 '민정'에게 계속 이야기해 보라며 대화를 이끌고 있다.

④ 선생님은 '민정'이 '도현'의 성격을 고려하여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민정'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⑤ 선생님은 '도현'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의 입장을 이해한 '민정'의 말에 맞장구치며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17 친구가 노래 대회에서 탈락해 속상해할 때는 친구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공감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그러나 ⑤는 친구의 처지와 감정을 고려하지 못한 말이다.

18 어떤 문학 작품을 읽을지 고민이 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읽고 추천하는 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은 문학 작품을 기준으로 고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9 등장인물의 등장 횟수는 등장인물의 처지나 상황, 심리 등이 깊게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이다.

2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

[1] 한글의 창제 원리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58쪽

1 (1) ○ (2) ○ (3) × 2 (1) 발음 기관 (2) · 3 ②

- (3) 한글의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모음 기본자는 천지인(天地人)을 본떴으므로 모두 상형의 원리가 사용되었다.
- 한글의 자음 기본자(ㄱ, ㄴ, ㄷ, ㄱ, ㅁ)는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과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다. 그리고 모음의 초출자 'ㅏ, ㅑ, ㅓ, ㅕ'와 'ㅗ'를 다시 합성하여 재출자를 만들었다.
- 'ㄹ'은 자음 기본자 'ㄴ'에 가획하여 만든 글자이지만 소리의 세기 변화와 관련이 없는 이체자에 해당한다.

[학습목]

본문 059~064쪽

- 060쪽 실용, 훈민정음
- 063쪽 가획, 세기, 상형
- 064쪽 음절, 과학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059~064쪽

- 059쪽 01 ② 02 자주
- 060쪽 03 ② 04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05 ④
- 061쪽 06 ⑤ 07 왕자들과 공주들에게 소리를 내게 하고, 이를 관찰하고 연구하였다. / 의원을 불러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모양을 확인하였다. 08 ① 09 하늘, 땅, 사람
- 062쪽 10 ③ 11 ㅏ, ㅑ, ㅓ 12 ① 13 ⑤
- 063쪽 14 ② 15 ㅣ 16 ③ 17 ④
- 064쪽 18 ② 19 다양한 책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였다. 20 ⑤

- 한글은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의 한계를 인식하고 우리말을 바르게 표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글자이다.
- [A]에서 세종 대왕이 중국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어 쓰려는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에는 백성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 애민 정신이, ㉡에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는 실용 정신이 드러나 있다.
- 세종 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고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 일부 신하들은 백성이 글을 알고 지식을 쌓게 되면, 통치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한글 창제를 반대했다. ④는 새 글

자를 창제하기를 바랐던 세종 대왕의 생각이다.

-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목구멍소리 'ㅇ'을 만들었다.
- 세종 대왕은 자음자를 만들 때 발음 기관의 움직임, 모양을 본뜨기 위해, 왕자들과 공주들이 소리를 내는 모습을 관찰하고 의원을 불러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과 모양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 'ㄱ'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어금닛소리이다.
- 'ㅡ'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ㅗ'는 땅의 평평한 모양을,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ㅍ'은 자음자 둘 이상을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들었다.
- 'ㅇ, ㄴ, ㅅ'에 획을 더하여 'ㅇ, ㄹ, ㅆ'을 만들었지만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다.
- 모음의 재출자는 초출자 'ㅏ, ㅑ, ㅓ, ㅕ'에 기본자 'ㅗ'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 재출자는 초출자에 'ㅗ'를 합성하여 만든다. 'ㅠ'는 초출자 'ㅑ'에 'ㅗ'를 합성하여 만든 글자이다.

[오답 풀이]

-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상형의 원리로 본떠 만든 자음 기본자이다. 이러한 'ㄴ'에 획을 더해 'ㄷ, ㅌ'을 만들었다. 이처럼 같은 발음 기관을 사용하는 글자들은 모양도 비슷하여 소리와 글자 모양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 자음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글자는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더 세진다고 하였다.
- 'ㅑ'는 재출자로, 초출자 'ㅑ'에 모음 기본자 'ㅗ'를 합성하여 만든 글자이다.
- 'ㅓ'는 초출자로, 모음 기본자 'ㅗ'와 'ㅓ'를 합성하여 만든 글자이다.

- 'ㅑ, ㅓ, ㅕ'에 'ㅣ'를 더하여 'ㅑ, ㅓ, ㅕ'를 만들 수 있다.
- 모음자는 상형과 합성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후, 모음자끼리 글자를 더하여 새 모음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 'ㅑ'와 'ㅣ'를 더하면 'ㅑ'가 만들어진다. 'ㅑ'는 'ㅑ'에 'ㅣ'를 더하여 만든다.
- 한글은 다른 문자와는 다르게 글자를 풀어쓰지 않고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한다.
- 세종 대왕은 훈민정음을 백성들이 널리 쓰도록 하기 위해, 여러 책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고 배포하였다고 하였다.
- 이 면담에서 세종 대왕이 한글을 세계에 보급하려고 했던 노력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② 한글은 24개의 자모만으로 수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자라고 하였다.
- ③, ④ 현재 한글은 우리 국민 대부분이 쓰고 있으며, 세계에서조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059~064쪽

059쪽 (1) 표기 (2) 창제 (3) 군주

064쪽 (1) 배포하다 (2) 보급하다

학습 활동

본문 065~068쪽

어휘 ㄱ, ㅅ, 목구멍, 땅, ㅣ, 백성, 빠르게

적용 일치, 한글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65~068쪽

065쪽 01 ④ 02 ㄱ, ㅌ, ㅊ, ㅈ 03 ④ 04 실용 정신

066쪽 05 ② 06 ⑤

067쪽 07 ①, ④ 08 ①

068쪽 09 ④

- 01 'ㄴ'은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 02 기본자 'ㅇ'과 'ㄷ'을 결합하여 'ㅇ', 'ㄴ'을 만들고, 'ㅇ'과 'ㅣ'를 결합하여 'ㅅ', 'ㅈ'을 만들었다.
- 03 모음자는 모음자끼리, 자음자는 자음자끼리 모여 각각 모음자, 자음자가 된다.
- 04 사람들이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에서 문자의 실질적인 쓸모와 가치를 중시하는 실용 정신이 드러난다.
- 05 한글은 실제로 말하는 음절 단위로 모아써서(ㄱ)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ㄴ), 문장을 읽기가 편하다(ㄷ).
- 06 이 글에서는 한글이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 배열에 유리하고, 문자와 소리가 같아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 유리하다는 예를 들어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 07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비슷하여 컴퓨터 자판의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자음자와 모음자를 배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어 컴퓨터에서 입력 속도가 빠르다. 휴대 전화에서도 적은 수의 조작 단추에 자음과 모음을 배열할 수 있어서 문자 메시지의 입력 속도가 빠르다. 또한, 모음이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되어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이 높아 한글 정보화에 유리하다.
- 오답 풀이** ② 글자와 의미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연결된다.
- ③ 이 글에서는 두 손으로 자판을 칠 때 한글이 입력하기 편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 ⑤ 이 글은 문자 입력 실수에 관한 자판 배열법은 언급하지 않았다.
- 08 모음 'ㅏ'는 음절의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 [ㅏ]로 발음되어, 한글이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 09 한글의 창제 원리와 가치를 정확히 알고, 이를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공유하고 소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압축 파일

본문 069쪽

- ① 한자 ② 애민 ③ 상형 ④ ㅁ ⑤ 초출자 ⑥ ㅣ
⑦ 음절 ⑧ 획 ⑨ 입력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70~071쪽

- 01 ③ 02 ⑤ 03 ② 04 ② 05 초출자 'ㄱ, ㅌ, ㅊ, ㅈ'에 'ㅇ'을 합성하여 만들었다. 06 모아쓰기는 자음과 모음을 소리를 내는 단위인 음절로 모아쓰는 것이다. 07 ③ 08 ⑤ 09 ④

- 01 이 면담에서 세종 대왕은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이 창제된 이후 백성들의 문자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다)에서 가획의 원리를 이용하여 한글 자음자를 만든 방법을 설명하였다. 'ㄱ'에 획을 더한 'ㅋ', 'ㄴ'에 획을 더한 'ㄷ, ㅌ', 'ㄹ'에 획을 더한 'ㄴ, ㄹ', 'ㅅ'에 획을 더한 'ㅆ, ㅈ', 'ㅇ'에 획을 더한 'ㅎ, ㅎ'이 가획의 원리로 창제한 글자이다.
- ② (나)에는 모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가, (라)에는 기본자를 바탕으로 하여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든 원리가 제시되어 있다.
- ④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글자를 창제했다는 내용을 통해 한글이 체계적인 문자임을 알 수 있다.
- ⑤ (가)를 통해 세종 대왕이 직접 발음 기관을 관찰하며 연구하고, 의원들에게까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02 'ㄷ'은 자음 기본자 'ㄴ'에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 03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상형의 원리) 만들었다.
- 04 (다)에서는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면 소리가 더 세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ㄱ'에 획을 더한 'ㅋ'은 더 센 느낌을 나타내므로 '울긁'보다 '울컥'이 더 센 느낌을 준다.
- 05 **서술형** (라)에서 세종 대왕은 기본자들을 한 번만 합성하여 초출자를 만든 후, 이 초출자와 기본자 'ㅇ'을 다시 합성하여 재출자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 06 **서술형** (가)에서 세종 대왕은 실제 말을 할 때 음절 단위로 소리 내는 것을 고려하여, 적을 때에도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를 하도록 했다고 하였다.
- 07 (가)에서 설명한 모아쓰기는 말소리의 특성을 반영하여(ㄱ), 실제로 말할 때 음절 단위로 소리 나는 것처럼 자음과 모음을 모아쓰게 한 것이다(ㄴ). 이러한 한글의 특성 때문에 24개의 적은 자모로도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다(ㄷ).
- 08 한글은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가 비슷하여 자판 왼쪽에는 자음, 오른쪽에는 모음을 배치해 번갈아 가며 글자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
- 09 표를 보면 모음 'ㅏ'는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어 문자와 소리의 일치성이 높다. 이러한 한글 모음자의 특징 때문에 한글은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컴퓨터 등 정보화 사회의 다양한 매체 사용에 유리하다.

[2] 올바른 발음과 표기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72쪽

1 (1) × (2) ○ (3) × 2 (1) 반드시 (2) 반듯이 3 안, 앞

- (1) 우리말의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으로만 발음된다.
(3)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의 의미이고, ‘반듯이’는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의미이다.
- ‘안’과 ‘않’은 각각 ‘아니’와 ‘아니하-’가 줄어든 말로 문장에서 표기가 올바른지 주의해야 하는 말이다.

학습 활동

본문 073~079쪽

이해 발음, 비출, ㄱ, ㅂ, 무릅, 소리, 닫혀서
적용 막따, 무니

학습곡

본문 073~079쪽

075쪽 ㄴ, ㄷ, 여덟, ㅌ, 조사
077쪽 어법, 소리, 붙이다, 되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73~079쪽

073쪽 01 ② 02 ① 03 바테
074쪽 04 ㄱ, ㄴ, ㄷ, ㄹ, ㅁ, ㅂ, ㅇ 05 ④ 06 ③ 07 ③
075쪽 08 (1) [우리의/우리예], [희망] (2) [의사], [주의/주이]
09 ③
076쪽 10 ③ 11 ⑤ 12 ⑤
077쪽 13 안, 앞았을 14 ③
078쪽 15 ② 16 ①
079쪽 17 ③

- 표준어의 발음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발음을 따른다.
- 남학생이 ‘빛을[비출]’을 [비술]로 잘못 발음하여 두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발에’는 홑받침 ‘ㅂ’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에’와 결합하였으므로 [바테]로 발음해야 한다.
- 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하고, 나머지 받침은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7개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 ‘앞’은 [압]으로 발음되고 나머지 받침은 [ㄷ]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술], ② [리], ③ [빈], ⑤ [을]

06 ‘답’의 겹받침 ‘ㅍ’은 두 번째 받침으로 발음하여 [닥]으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넉], ② [검], ④ [여덟], ⑤ [홀때]

07 받침 ‘ㅍ’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을다’는 [읍따]로 발음된다.

08 (1) 조사 ‘의’는 [네]로 발음함도 허용하므로 ‘우리의’는 [우리의/우리예]로 발음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하므로 ‘희망’은 [히망]으로 발음한다.
(2) ‘의사’는 원칙대로 [의사]로 발음한다.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주의’는 [주의/주이]로 발음한다.

09 ‘너의’의 ‘의’는 조사이므로 [네]로 모두 발음할 수 있다. ‘의지’는 ‘의’가 단어의 첫음절로 온 경우이므로 [네]로 발음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의 의지’는 [너의 의지/너예 의지]로 발음할 수 있다.

10 <보기>의 문장에서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것은 ‘나쁜’, ‘본’, ‘하얀’이다.

11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어법에 맞도록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는 원칙이 더해진 것이다.

12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의 뜻이다. ⑤에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의 뜻을 지닌 ‘맞히다’를 사용해야 한다.

13 ‘안’은 ‘아니’의 준말이므로 ‘안(아니) 부쳤어.’로 써야 하고, ‘않’은 ‘아니하-’의 준말이므로 ‘않았을(아니하였을) 거야.’로 써야 한다.

14 ‘되’ 뒤에 ‘-어, -었-’이 어울려 ‘내, 됐’으로 될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따라서 ‘되어’의 준말은 ‘돼’로 적는다. ③의 ‘돼’는 ‘되어’의 준말이다.

오답 풀이 ① ‘되어’의 준말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돼’로 쓰는 것이 바르다.
② ‘되어오’의 준말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돼오’로 쓰는 것이 바르다.
④ 동사 ‘되다’의 어간 ‘되-’에 어미 ‘-는’이 붙은 것이므로 ‘되는’으로 쓰는 것이 바르다.
⑤ ‘되었어’의 준말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됐어’로 쓰는 것이 바르다.

15 ‘답’에는 홑받침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에’와 만났으므로 [다베]로 발음된다.

16 겹받침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하므로 ‘읽다’는 [익따]라고 발음한다. 받침 ‘ㅎ’은 그 뒤에 ‘ㄷ’이 결합될 경우에, 뒤 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ㅌ]으로 발음하므로 ‘쌍다’는 [쌍타]라고 발음한다.

17 ‘어떻게 해’는 줄어들어 ‘어떡해’가 되므로, ‘어떡해’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압축 파일

본문 080~081쪽

- ① 실제 ② 키읃 ③ ㄹ ④ 음따 ⑤ ㅣ ⑥ 어법
⑦ 아니 ⑧ 앞 ⑨ 어떻게 ⑩ 왜인지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082~083쪽

- 01 ② 02 ① 03 ⑤ 04 ③ 05 ① 06 ③ 07 ④
08 ① 09 다쳐서 → 달혀서 10 ③ 11 ① 12 ④
13 틀린 부분 고치기: 어떻게 → 어떡해 / 이유: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이므로 '어떡해'로 표기해야 한다. 14 ④ 15 ②

01 남학생이 '빋을[비출]'을 [비술]로 잘못 발음하여 여학생이 이를 '빋을'로 오해하였다. 이를 통해 발음이 바르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02 받침 'ㄴ'은 본음 그대로 발음되므로 '문'은 [문]으로 발음된다. 받침 'ㄷ, ㅌ, ㅅ, ㅆ, ㅈ, ㅊ'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므로, '곧, 옷, 술, 갓'은 각각 [곧, 옷, 술, 갓]으로 발음된다.

03 받침 'ㅍ'은 대표음 [ㅂ]으로 소리 나므로 '앞'은 [압]으로 발음한다. '없다'는 받침 'ㅁ'의 첫 번째 자음인 [ㅂ]으로 발음하여 [압:따]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안따], ② [여덜], ③ [와골/웨골], ④ [홀따]

04 '흙은', '흙을', '흙에서'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여 'ㅍ'의 뒤엎것인 'ㄱ'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는 경우로, [흙근], [흙글], [흙게서]로 발음한다. '흙장난', '흙'은 'ㅍ'의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 [ㄱ]으로 발음하여 [흑장난], [흑]으로 발음한다.

05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ㄷ]로 발음하지만 예외적으로 '뵤다'에서 '뵤-'은 자음 앞에서 [ㅃ]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뵤지'는 [뵤:찌]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② 웅언 어간의 끝소리 'ㅃ'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하므로 '뵤고'는 [뵤꼬]로 발음한다.

③ 받침 'ㅃ'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므로 '뵤다'는 [뵤:따]로 발음한다.

④ '넙-'이 포함된 '넙죽하다', '넙둥글다'의 경우 [넙꾸하다], [넙뚱글다]로 발음한다.

⑤ 받침 'ㅃ'은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므로 '넙조린다'는 [넙쪼린다]로 발음한다.

06 ③의 '띄어쓰기'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에 'ㄴ'이 쓰였으므로 [ㄴ]로 발음하여 [띄어쓰기/띠어쓰기]로 발음한다. ①의 '의리', ④의 '의사', ⑤의 '의상'은 단어의 첫음절에 '의'가 오므로 [ㄴ]로 발음한다. ②의 '친구의'에서는 '의'가 조사로 쓰였으므로 [친구의/친구에]로 발음할 수 있다.

07 이중 모음 'ㄴ'을 발음할 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ㅛ]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단어의 첫음절의 '의'는 [의]로 발음해야 하므로 '의의[의의/의이]'를 [이의]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08 제시된 문장은 [나는 하얀 꼬치/꼬치 이리미 궁금했따]로 소리 난다.

09 **서술형** 문구점이 문을 일찍 닫았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다치다' 대신 '닫다'의 피동형인 '닫히다'를 써서 '닫혀서'로 써야 한다.

10 ③은 '침, 주사 따위로 치료를 받게 하다.'는 의미의 '맞히다'를 활용하여 '맞히기'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반듯이: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② 마치다: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

④ 맞히다: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

⑤ 반드시: 틀림없이 꼭

11 ①에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는 의미의 '부치다'가 들어가야 한다.

오답 풀이 ② '맞달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는 의미의 '붙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③ '어떤 감정이나 감각을 생기게 하다.'는 의미의 '붙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④ '불을 일으켜 타게 하다.'는 의미의 '붙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⑤ '물체와 물체 또는 사람을 서로 바짝 가깝게 하다.'는 의미의 '붙이다'가 들어가야 한다.

12 '댜'는 '되어'의 준말이므로 '되어'로 쓸 수 있으면 '댜'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되'로 적는다. '된다며'는 '되언다며'로 쓸 수 없으므로 '된다며'가 맞는 표기이다.

13 **서술형** '어떻게'는 틀린 표기이다. '어떻게 해'의 줄인 표현은 '어떡해'이다.

14 받침 'ㅎ'은 뒤에 자음 'ㄱ, ㄷ, ㅈ'이 오는 경우 뒤 음절의 첫소리와 결합하여 [ㅋ, ㅌ, ㅊ]으로 발음한다. 그리고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남았따'는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았-'이 왔으므로 'ㅎ'을 발음하지 않고 [나안따]로 발음한다.

오답 풀이 ①, ② '놀'과 '쌓'의 받침 'ㅎ'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므로 발음하지 않는다.

③ '잡'의 받침 'ㅈ'에서 'ㅎ'이 뒤에 오는 'ㄷ'과 결합하여 [ㅌ]으로 발음된다.

⑤ '줄'의 받침 'ㄹ'이 뒤에 오는 'ㄱ'과 결합하여 [ㄱ]으로 발음된다.

15 '어찌 된 일'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단어는 '웬일'이다. '웬일'은 '웬일'의 방언으로 올바른 표준어 표기가 아니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084쪽

- 01 ② 02 ③

01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 그리고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상형하여 만들었다.

02 '미쁘다'는 믿음성이 있다는 뜻이므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긍정 표현과 어울려 쓰여야 한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085~088쪽

- 01 ② 02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 03 ③ 04 ④ 05 ① 06 ⑤ 07 ⑤
08 하나의 모음자가 한 가지 소리로만 발음된다. 09 ③ 10 ①
11 ④ 12 ⑤ 13 ④ 14 ③ 15 ④ 16 발음: [모의고사를 보기 전 주의 사항], [모의고사를 보기 전 주의 사항], [모의고사를 보기 전 주의 사항], [모의고사를 보기 전 주의 사항] / 이유: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와 [ㅣ]로 모두 발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7 ⑤ 18 ① 19 ③ 20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21 ③
22 ④ 23 ② 24 ②

- 01 한글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하는 글자가 없어서 중국
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썼다.
- 02 **서술형**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법을
가획의 원리라 하는데, 획을 하나씩 더할 때마다 소리가 더
세지는 특성이 있다.
- 03 'ㅏ, ㅑ'는 초출자 'ㅏ, ㅑ'와 기본자 'ㅏ'를 합성하여 만든 재출
자이다.
- 04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ㄱ'을,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떠 'ㄴ'을, 입의 모양을 본떠 'ㄷ'을, 이의 모양
을 본떠 'ㅌ'을,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ㅇ'을 만들었다.
- 05 'ㄱ'은 'ㄱ'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에 따라 만든 글자이다.
- 06 모아쓰기는 사람이 실제 말을 할 때 음절 단위로 발음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음과 모음을 합쳐 쓰는 방법이다.
- 07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법으로는 누리 소통망에 한글을
소재로 한 예술 작품을 소개하거나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글
을 쓰는 것 등이 있다.
- 08 **서술형** 제시된 표에서 한글 모음자 'ㅏ'는 하나의 소리로 발
음되지만 로마자 'a'는 네 가지로 발음된다.
- 09 한글이 창제된 후, 우리나라 국민이면 대부분 한글로 읽고 쓰
는 문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학적이고 실
용적인 한글의 특성이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 유리하게 작
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 10 ④ [키웁], ⑤ [문], ⑥ [온], ⑦ [반파], ⑧ [압]으로 발음하
다.
- 11 ① [넉], ② [갑], ③ [골], ④ [혹], ⑤ [할파]로 발음한다. ④
는 겹받침 중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고, 나머지는
겹받침 중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한다.
- 12 'ㅼ'는 겹받침 중에서 첫 번째 받침의 대표음인 [리]로 발음된
다. 다만, 'ㅼ'는 자음 앞에서 [람]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보기〉의 단어는 '뵤다[뵤파]', '뵤다[넉파]', '뵤다[잘파]', '여
뵤[여넉]'로 발음한다.
- 13 겹받침 'ㅼ'는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인 [ㄱ]으로 발음하나, 용

언의 어간 끝소리에 오는 'ㅼ'의 뒤에 'ㄱ'이 오는 경우에는
[리]로 발음한다. '뵤다'는 용언 어간의 끝소리 'ㅼ' 뒤에 'ㄱ'이
오므로 [뵤파]라고 발음해야 한다.

- 14 '뵤파'는 '뵤'의 'ㅼ' 받침이 대표음인 [리]으로 발음된다. 그리
고 [ㄱ, ㄷ, ㅌ]으로 발음되는 받침의 뒤에 오는 자음 'ㄱ'이 된
소리로 변하여 [넉파]로 발음된다.

오답 풀이 ① [꼬출], ② [다림], ④ [잠꼬], ⑤ [무르름]

- 15 받침 'ㅎ'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발음되지 않으므
로 '냥아'는 [나이]로 발음한다.

- 16 **고난도 서술형** '모의고사'와 '주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에
'의'가 사용된 단어이다. 그러므로 [-] 이외에 [ㅣ]로도 발음
함을 허용한다.

평가 목표	이중 모음 'ㅏ'의 발음 원칙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제시된 말의 발음과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 제시된 말의 발음과 그 이유를 <조건> 중 하나만 맞게 쓴 경우 [중]
	✓ 제시된 말의 발음과 그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쓰지 못한 경우 [하]

- 17 〈보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말은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생긴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쓴다는 원칙을 추가한 것이다.
- 18 ① [한:굴], ② [책쟁], ③ [넉비], ④ [외골/웨골], ⑤ [만쩍]
으로 발음한다. 그러므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은 ①이
다.
- 19 '어떻게'는 '의견, 성질, 형편, 상태 따위가 어찌 되어 있다.'는
의미의 '어떻다'에 어미 '-게'를 붙인 것이므로 맞는 표기이
다. '어떡해'는 '어떻게 해'를 줄인 말이므로 '어떡해'로 표기하
는 것이 적절하다.
- 20 **서술형** '안'은 용언 앞에 쓰여 부정이나 반대의 뜻을 나타내
는 말인 '아니'의 준말이고, '않다'는 앞말의 뜻을 부정하는 의
미를 지닌 '아니하다'가 줄어든 말이다.
- 21 ③의 밑줄 친 단어는 '쏘거나 던지거나 하여 물체가 어떤 물
체에 닿게 한다.'는 의미의 '맞힌다'로 써야 한다.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는 의미이므로 ③에
쓰기에 적절한 단어가 아니다.
- 22 '되-' 뒤에 '-어'가 붙었을 때는 줄여서 '돼'로 써야 한다. 따
라서 ④의 '뵤했습니다'는 '뵤었습니다'를 줄인 '뵤했습니다'로 고
쳐야 한다.
- 23 ⑤ '뵤류이'가 올바른 표기이다.
- 24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 '-(으)ㄹ까'는 된소리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예사소리로 적어야 하는 어미의 예가 들어갈 빈칸에
넣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매체로 보는 세상

[1] 매체의 표현과 그 의도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092쪽

1 (1) ○ (2) ○ (3) × 2 인터넷 3 ④

- (3) 인터넷 매체는 문자, 시각 자료, 동영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사용한다.
- 인터넷 매체의 종류에는 온라인 대화, 블로그와 댓글, 전자 우편, 문자 메시지 등이 있다. 인터넷 매체는 일대일 또는 일대다의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정보가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 정보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특징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라고 한다.

학습 활동

본문 093~099쪽

어휘 문장, 스마트폰, 합병증, 그래프, 동영상

적용 가상 공간, 익명성, 모양

[학습목]

본문 093~099쪽

093쪽 사진, 의문문

097쪽 그림, 신뢰도, 동영상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093~099쪽

093쪽 01 ① 02 ①

094쪽 03 ① 04 그림, 시각

095쪽 05 검사 표 06 ③

096쪽 07 ② 08 ⑤

097쪽 09 ⑤ 10 카드 뉴스

098쪽 11 ④ 12 ③

099쪽 13 ①, ④ 14 이동 통신

- 이 광고문은 인상적인 광고 문구와 사진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다.
- 이 광고문에서는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제작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
- 이 글은 인터넷 매체 중에서 블로그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노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눈이 나빠진 사람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는 글의 도입부에서 자신이 제시하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면서, 읽는 이의 흥미를 높이려 하고 있다.

05 '나도 스마트폰 노안일까?'에서는 스마트폰 노안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표를 제시하여, 이 블로그 글을 읽는 이가 자신의 눈 건강을 돌아보게 하면서, 스마트폰 노안의 치료와 예방법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06 ㉠에서 글쓴이는 다음에 연재할 내용을 예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로그는 글쓴이가 설명하려는 내용을 편하게 연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 속 정보는 그물망처럼 얽혀 있어 정보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

②, ④ 인터넷 매체의 특성으로 블로그에도 해당되는 내용이나, 다음에 연재할 내용을 예고한 ㉠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⑤ 그림, 그래프, 동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전문적인 내용을 설명한 이 글 전체에는 해당되는 내용이나, ㉠만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은 아니다.

07 ㉠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삼아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이 크다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08 글쓴이는 의학 전문가와의 면담 내용,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여러 증상과 원인 등 전문적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글쓴이는 이 동영상을 제시하여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에 관해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그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다.

09 이 글의 예상 독자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블로그 글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글쓴이는 청소년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쓴 것이다.

10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간략한 글로 제시한 것을 카드 뉴스라고 한다. 카드 뉴스는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 통신 기기에 맞춤형된 형식으로,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보는 방식이며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11 이 카드 뉴스는 사이버 불링에 관한 내용을 사진,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있을 뿐,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카드 뉴스는 간략한 글을 사진,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에 얹어 제시한다.

②, ⑤ 이 카드 뉴스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불링이라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마지막에 사이버 불링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상 공간에서 예의를 지켜야 함을 당부하고 있다.

③ 카드 뉴스는 일반적인 장문의 기사와 달리, 스크롤바를 내리지 않고 화면을 옆으로 밀어서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12 ㉠은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상자로 가리고,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상황을 그 위에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13 ㉠은 가상 공간에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뉴스의 주제를 문장(글)으로 제시하고, 글자 모양과 굵기에 변화를 주어 읽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아니라 '키아라 나스티'가 예의를 지키라고 한 말을 인용하였다.

③, ⑤ '키아라 나스티'의 실제 사진이나 핵심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검은 바탕을 지운 듯한 흰색 공간에 '키아라 나스티'가 한 말을 제시하였다.

14 카드 뉴스는 짧은 글을 사진 여러 장에 얹어 사진을 한 장씩 넘겨 보는 형식으로, 화면을 옆으로 밀어 보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카드 뉴스가 이동 통신 맞춤형 뉴스임을 알 수 있다.

압축 파일

본문 100쪽

① 대구 ② 그래프 ③ 인터넷 ④ 시각 자료 ⑤ 인상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01쪽

01 ⑤ 02 ② 03 읽는 이의 흥미 04 ⑤

01 (가)는 광고문, (나)는 블로그 글, (다)는 카드 뉴스이다. (가)는 인쇄 매체로 문자와 사진을 활용하고 있고, (나)와 (다)는 인터넷 매체로 문자와 함께 사진, 그림 등의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02 (가)는 '잡고'와 '잡혀'의 단어만 달리한 비슷한 구조의 두 문장을 강조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03 **서술형** ㉠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눈이 나빠진 사람을 나타낸 그림이다. 글쓴이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 사용으로 발생하는 노안 증상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4 ㉡에서는 비난하는 듯한 손 모양과 그 아래 괴로워하는 사람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사이버 불링이 주는 고통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주요 장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카드 뉴스이다.

② ㉠에는 키보드 위로 손 그림자가 나타나 있지만, 이것은 막 키보드로 글을 쓰려는 것을 암시할 뿐이다.

③ ㉠에서는 사이버 불링을 당한 대학생 ○○ 씨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사이버 불링의 개념 자체를 설명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은 비난하는 듯한 손 모양과 그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2] 매체 자료의 효과

학습 활동

본문 102~109쪽

이해 동영상, 지역, 지진 피해, 불의 고리, 대처법

학습목

본문 102~109쪽

107쪽 포스터, 사진, 지역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02~109쪽

102쪽 01 ④ 02 듣는 이, 내용
103쪽 03 ⑤ 04 ①
104쪽 05 ① 06 ③
105쪽 07 ④ 08 정보, 대처법
106쪽 09 ④ 10 ②
107쪽 11 ⑤ 12 ②
108쪽 13 ④ 14 층간 소음, 배려
109쪽 15 ②

01 이 강연에서는 강연자가 강연 중에 질문을 던져 듣는 이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을 뿐, 듣는 이가 강연자에게 질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이 강연은 지진을 주요 소재로 삼아 지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이 강연에서는 사진, 동영상, 그림, 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듣는 이가 흥미를 느끼며 지진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⑤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자신의 말이 영화를 보며 지진에 대해 보였던 반응을 소개하며 듣는 이의 주의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02 (가)는 강연의 '처음' 부분으로 강연자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듣는 이를 밝히고 있으며,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대처 방안'이라는 강연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03 (나)의 2~5번째 문장을 통해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과 지진의 개념을, 2~3번째 문장을 통해 지진이 형성되는 과정을, 7~9번째 문장을 통해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와 지진의 유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04 ㉠은 네팔의 어느 마을이 지진으로 무너진 모습, 일본의 해안 마을이 해일에 휩쓸리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이 사진들을 통해 듣는 이는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05 강연자는 듣는 이에게 ㉠과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듣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06 (라)에서 강연자는 지진 발생 지역을 표시해 놓은 지도인 ㉡을 제시하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쉬운 지역을 설명하고 있다.

07 이 강연에서 제시한 '장소에 따른 지진 대처법' 표는 실내와 실외에 있을 때의 지진 대처법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

오답 풀이 ① 표에서 지진 대피 요령을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대피 요령은 지진의 강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장소에 따른 것이다.

② 표에서는 지진 발생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제시하고 있으나, 어떻게 대피소를 찾는지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표에서는 지진 발생 후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 상황을 체험하게 하지는 않는다.

⑤ 표는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안내하여 지진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진 때문에 일어나는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8 이 강연은 ‘지진의 개념과 발생 원인’, ‘지진 피해 사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 지진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소개하고 있다.

09 이 강연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처음’ 부분에 제시한 강연 순서에 따라, 지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듣는 이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0 이 강연에서 그림은 세계의 지진대를 나타낸 것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잘 나타내는 것은 표나 그래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동영상은 지진의 발생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 줌으로써 듣는 이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강연을 시작하는 부분에 제시된 영화 포스터는 강연 주제인 지진에 관해 듣는 이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④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과 일본의 마을을 제시한 사진은 지진 피해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어 그 참혹함과 심각성을 실감 나게 느끼게 한다.
 ⑤ 이 강연에 활용한 다양한 매체는 강연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듣는 이의 주의를 끄는 효과가 있다.

11 (가)와 (나)는 모두 지진 대처법을 보여 주고 있으며(ㄷ), 이를 실내와 실외에 있을 때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ㄹ). 다만 (가)는 그 정보를 표로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고, (나)는 그림으로 그려 전달하고 있다.

12 지진을 직접 체험해 보고 대비할 수 있는 지진 체험관에 대한 정보는 이 강연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진 체험관의 위치는 그래프가 아닌, 지도나 표를 통해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래프는 어떤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거나,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데 적합한 매체 자료이다.

오답 풀이 ①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될 자료이다.
 ③, ④, ⑤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음을 알게 해 주는 자료들로, 이를 통해 지진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깊이 이해하고, 지진 대처법을 익힐 필요성을 깨닫게 할 수 있다.

13 (가)는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증가 실태를 나타낸 그래프이고, (나)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사진이다. 그리고 (다)는 층간 소음 문제를 표현한 그림이다. 이를 통해 (가)~(다)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문제를 다룬 자료임을 알 수 있다.

14 ㉠은 아래층과 위층의 층간 소음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자료이다.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과 법적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15 ‘대기 오염’을 주제로 발표를 할 때 현재 대기 오염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현황을 그래프로 보여 줄 수 있다(ㄱ). 그리고 대

기 오염의 원인 중 미세 먼지로 발생하는 질환을 동영상을 활용하여 소개할 수 있다(ㄹ).

압축 파일

본문 110쪽

- ① 자기소개 ② 정보 ③ 과정 ④ 지진대 ⑤ 동영상
 ⑥ 목적

시업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11쪽

- 01 ① 02 ① 03 ② 04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

01 이 말하기의 갈래는 강연이다. 강연은 강연자가 일정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듣는 이에게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이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말하기이다.

오답 풀이 ②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누는 논제에 대하여 각 토론자가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내세우는 말하기 방식은 토론이다.
 ③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말하기 방식은 대화이다.
 ④ 특정 인물이나 주제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면담자와 면담 대상자가 주고받는 말하기 방식은 면담이다.
 ⑤ 공동의 문제에 대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나누면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말하기 방식은 토의이다.

02 (라)에서 강연자는 이 강연을 통해 지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며,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를 통해 이 강연에서는 지진의 개념(ㄴ)과 지진 발생 시 대처법(ㄱ) 등에 대해 설명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오답 풀이 ㄷ. (라)에서 지진 관련 영화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추측할 수 없는 내용이다.
 ㄹ. (가)에서 강연자가 소방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라)를 통해서 추측할 수 없는 내용이다.

03 ㉠은 지진을 소재로 한 영화의 포스터로, 강연자는 이 포스터를 제시하여 강연 주제인 지진에 관한 듣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04 **서술형** (다)에서 강연자는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동영상을 보자고 하였고, 동영상을 본 후에 강연자는 지구 내부의 커다란 힘, 화산 활동 등으로 지진이 일어난다고 지진의 발생 원인을 정리하고 있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112쪽

- 01 ①

01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이라는 뜻이므로 ①의 쓰임은 바르지 않다. ①에는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인 ‘한창’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113~116쪽

- 01 ④ 02 ② 03 ③ 04 실제 인물의 사진을 제시하고 그 인물이 겪은 사건을 문장으로 표현하여, 읽는 이의 흥미와 내용의 신뢰도를 높여 하였다. 05 ③ 06 사진 07 ④ 08 ④ 09 ⑤ 10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11 ① 12 ③ 13 ⑤ 14 ③ 15 ③

- 01 매체에 담긴 정보를 수용할 때 그 매체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파악하되,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정보를 파악할 필요는 없다.
- 02 (나)에서는 스마트폰 노안 환자의 대부분이 젊은 세대라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여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점, 스마트폰 노안에 여러 합병증이 뒤따른다는 점을 근거로 스마트폰 노안의 위험성을 밝히고 있다.
- 03 ㉠에서 의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제시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스마트폰 노안에 뒤따르는 다양한 합병증에 관한 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 있을 것이다.
- 04 **고난도 서술형** ㉡에서는 사이버 불링을 당한 이탈리아 모델의 실제 사진과 그 모델이 겪은 사건의 내용을 문장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진과 문장을 통해 글쓴이는 읽는 이의 흥미를 높이고, 전달하려는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코자 한 것이다.

평가 목표	카드 뉴스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를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중]
	✓ ㉡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를 썼으나, 서술이 미흡하고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하]

- 05 (나)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스마트폰 노안의 치료와 예방법에 관한 내용은 (나)에 연재되는 다음 글에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나이를 먹으면서 가까운 곳의 사물이나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증세'라고 노안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이 스마트폰을 자주, 오래 사용하는 젊은 세대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며, 스마트폰 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다고 하면서,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④ (나)에서는 스마트폰 노안 증상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 표를 제시하면서, 스마트폰 노안의 치료와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⑤ (다)의 왼쪽 카드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이버 불링이 가볍게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6 **서술형** 카드 뉴스는 주요 쟁점을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것으로, 짧은 글을 사진 여러 장에 얹어서 구성하므로 화면을 옆으로 밀어 보는 것이 특징이다.

- 07 ㉠에서는 재미있다는 까닭으로 '엽사'가 공유되는 상황을 대화로 재구성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가 무심코 저지러 수 있는 사이버 불링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 하단에 '엽사'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가 나타나 있을 뿐, 사이버 불링 자체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다.

② 사진과 그림으로 가상 공간의 익명성을 표현한 것은 ㉠이 아니라 왼쪽의 카드이다. 왼쪽 카드에서는 상자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의 사진과 그들의 대화 상황을 그림으로 제시함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③ ㉠에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하는 것도 사이버 불링에 속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 카드 뉴스 전체의 주제를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의 대화에서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피해자의 곤란한 심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고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08 매체 자료의 효과는 강연자가 아니라 강연 내용과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 09 (나)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땅이 뒤틀리면서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이 붕괴된다고 하였다.

- 10 **서술형** (다)에서는 세계의 지진대 그림을 제시하면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1 ㉠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과 일본 마을의 모습을 보여 주는 사진으로, 이를 통해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 나게 느끼게 한다.

오답풀이 ② ㉠은 지진의 피해를 입은 네팔의 어느 마을과, 일본의 해안 마을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이 사진을 통해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③ ㉠의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불의 고리'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어 듣는 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④ ㉠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세계 지도에 표시하여 한눈에 보여주는 자료이다.

⑤ ㉠의 사진과 ㉡의 지도는 모두 시각적으로 듣는 이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흥미를 이끌어 낸다.

- 12 (나)는 스마트폰 노안에 관한 내용을 담은 블로그 글로, 블로그는 인터넷 환경만 갖추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해당한다.

- 13 제시된 그래프는 다른 세대에 비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나)에 제시할 경우,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 14 ㉠은 중학생의 말을 인용하여 노안에 대해 설명하고, 화제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 15 ㉠과 같은 동영상 매체는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실감 나게 보여 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자전거 조립 방법과 같이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 주어야 하는 내용은 동영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② 대상의 모양,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④, ⑤ 대상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거나,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나타내어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 주는 표나 그래프로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4 새롭게 보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1] 문학 작품의 재구성

간단 체크 개념 문제

본문 120쪽

1 재구성 2 ① 3 (1) × (2) × (3) ○

- 문학 작품은 그 내용이나 형식, 매체 등을 바꾸어 새로운 작품으로 창작할 수 있는데, 이를 문학 작품의 '재구성'이라고 한다.
- 〈보기〉에서 재구성하려는 작품은 '홍부'를 긍정적으로, '늘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원작의 관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1) 재구성된 작품도 원작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2)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제재 ① 소설 준향전

학습목

본문 121~126쪽

- 125쪽 탐관오리, 절개, 암행어사, 빈어적
- 126쪽 백년해로, 부부, 사랑, 절개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121~126쪽

- 121쪽 01 ④ 02 ③
- 122쪽 03 ④ 04 ①
- 123쪽 05 눈치가 빠르다. 06 ① 07 ⑤
- 124쪽 08 ③ 09 ①
- 125쪽 10 ④ 11 ④ 12 봄바람에 핀 오얏꽃
- 126쪽 13 ⑤ 14 ③ 15 평등

- (다)를 보면 '몽룡'은 '변학도'를 벌주러 와서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침착하게 행동한다.
- (다)에서 '어사또'는 백성들의 곤궁한 삶은 돌보지 않고 요란한 잔치를 벌이는 수령들의 모습에 마음이 실란했다.
-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①은 초라한 상을 받은 '어사또'의 분한 마음을 서술자가 표현한 것일 뿐, 생일잔치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 (바)의 시에는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가렴주구(苛斂誅求)'는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음'을 뜻하는 말로, 백성들이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관리들이 수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풀이 ② '속수무책(束手無策)'은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을 뜻한다.

③ '오합지졸(烏合之卒)'은 '까마귀가 모인 것처럼 질서가 없이 모인 병졸이라는 뜻으로, 임시로 모여들어서 규율이 없고 무질서한 병졸 또는 군중을 이르는 말'이다.

④ '진퇴양난(進退兩難)'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뜻한다.

⑤ '함흥차사(咸興差使)'는 '심부름을 가서 오지 아니하거나 늦게 온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 (사)에서 '운봉'은 '어사또'의 시를 듣자마자 어사출두를 예고하고 여러 관리들을 불러 단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운봉'이 눈치가 빠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① 이후 서리와 역졸은 서로 신호를 교환하며 어사출두를 준비하고, 잠시 후에 암행어사 출두를 알린다. 따라서 ①에는 어사출두를 준비하라는 뜻이 담겼다고 볼 수 있다.
- ②은 '마패'를 '햇빛'과 '달'에 비유하여, 탐관오리에게 고통 받는 백성들의 삶이 밝아지고 '춘향'이 광명을 찾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②이 '어사또'가 '춘향'을 만나 자신에 대한 '춘향'의 절개를 시험할 것임을 암시한다고는 볼 수 없다.
- (차)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지배 계층이 어사출두에 놀라 허둥대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차)에서 관리들은 허세를 부리거나 체면을 차리지 않고, 엉뚱한 것을 들고 허둥대며 도망치려 하고 있다.
②, ⑤ (차)에서 관리들은 허둥지둥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있지만, 침울해하거나 침착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④ (차)에서 관리들은 어사출두 이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벌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달아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어사또'는 자신을 향한 '춘향'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①과 같이 말하며 '춘향'을 떠보고 있다.
- (파)에서 '춘향'은 '어사또'의 부당한 요구에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당차고 의지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①은 '춘향'이 어사또가 되어 자신 앞에 나타난 '몽룡'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갈등이 모두 해소되면서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 (하)에서 '춘향'은 자신을 '낙엽'처럼 질 위기로 몰아넣은 '변학도'의 횡포를 '가을'로, 어사또가 되어 자신을 살린 '몽룡'을 '봄바람에 핀 오얏꽃'으로 표현하였다.
- ①은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직접 드러내는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한다.
- '정렬부인'은 조선 시대에, 절개를 지킨 부인에게 나라에서 내리는 명예로운 호칭이다. 따라서 '춘향'에게 내린 '정렬부인'이라는 호칭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절개를 지닌 사람'을 기린다고 짐작할 수 있다.
- '춘향전'은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인 '몽룡'이 혼인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당시 백성들이 갈망했던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 체크 어휘 문제

본문 121~126쪽

- 121쪽 (1) 사령 (2) 차일
122쪽 (1) 거동 (2) 운자 (3) 남루하나
124쪽 (1) × (2) ○ (3) ×

제재 ② 만화 춘향전

학습목

본문 127~135쪽

- 135쪽 크기, 하늘, 그림, 역동적, 재회, 느낌, 요약, 생략

간단 체크 내용 문제

본문 127~135쪽

- 127쪽 01 만화 02 ④ 03 ④
128쪽 04 ④ 05 ⑤ 06 살금살금, 씩
129쪽 07 ② 08 극대화 09 ⑤
130쪽 10 ③
131쪽 11 ① 12 탐관오리를 벌한다.
132쪽 13 ① 14 ⑤ 15 ⑤
133쪽 16 ② 17 ④
134쪽 18 ③ 19 ⑤ 20 행복한 결말
135쪽 21 ④ 22 ④

01 만화는 '칸'을 기본 단위로 하여, 그 안에 여러 장면을 나누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갈래이다. 보통 상황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등장인물의 대사나 심리는 말풍선으로 나타낸다.

02 ①은 일반 대화를 나타내는 둥근 모양의 말풍선과 달리, 날카롭고 비죽비죽한 모양의 말풍선을 사용하여 큰 소리임을 표현하고 있다.

03 이 작품은 글로 표현한 원작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한 것으로, 소설의 내용을 그림과 말풍선 등으로 표현하였다.

04 만화는 글로 제시되는 소설과 달리 인물의 표정과 행동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② 소설과 만화는 모두 인물의 대사와 인물의 심리가 표현되며, 만화에서는 인물의 대사가 말풍선 안에 시각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만화에서는 인물의 심리가 대사뿐 아니라 인물의 표정과 행동 묘사를 통해 소설보다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③ 소설과 만화 모두 이야기 속에 인물 간의 갈등이 표현되며, 어느 갈래가 인물 갈등이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기 어렵다.
⑤ 인물이 처한 상황이 줄거로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갈래는 소설에 해당한다.

05 ①의 느낌표는 '몽룡'의 시를 들은 사람들이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놀랐음을 표현한 것이다.

06 '살금살금', '씩'은 결인의 시를 듣고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챈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표현한 의성어와 의태어이다.

07 ㉠에서 '변학도'는 혼자만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고 여전히 술주정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변학도'가 신경이 무뎠고 눈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8 만화에서는 장면을 극대화하기 위해 특정한 부분에서 ㉠과 ㉡처럼 말풍선에 들어가는 글자의 모양을 바꾸거나, 글자와 말풍선의 크기를 크게 하여 표현한다.

09 마지막 칸은 '몽룡'이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침으로써, 핵심이 되는 사건과 이야기의 반전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잔치 분위기를 전환하고 읽는 이의 긴장감을 높일 수 있다.

10 [A]에서는 역졸들이 관아로 달려가 덮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보기>에 비해 상황을 더 역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보기>는 소설 속 암행어사 출두 장면을 글로 서술한 것이고, [A]는 이를 만화로 재구성하여 그 장면의 배경과 인물들의 행동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즉, <보기>와 [A]는 같은 장면을 갈래만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는 '신천초목인들 금수인들 아니 떨겠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암행어사의 출두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보기>에서는 암행어사의 출두를 알리는 역졸들의 외침이 강산을 무너뜨리고 천지를 뒤집을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외침을 매우 과장되게 나타내고 있다.

11 ①의 하늘만 그려 놓은 칸은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암행어사 출두로 시끌벅적했던 상황이 정리되었음을 보여 준다.

12 암행어사가 ㉠과 같이 '본관 사또'를 봉고파직한 것은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한 탐관오리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13 ①은 '어사또'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고 던진 질문이다. 특히 이 내용을 눈에 띄는 글자체로 바꾸어서 이러한 '어사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14 ①은 탐관오리를 감찰하러 온 '어사또'마저 '변학도'와 다를없이 수청을 강요하자, 어이없어하는 '춘향'의 심리를 강한 색과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으로 강조한 것이다.

15 만화는 칸을 기본 단위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갈래로,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칸의 크기와 모양을 조절하여 표현한다.

16 <보기>를 만화에서는 효과선을 넣어 표현하였다. 고개를 드는 '춘향'의 시선과 '몽룡'을 보고 놀란 '춘향'의 표정이 이를 통해 강조된다.

- 오답 풀이** ① 만화에서는 '몽룡'의 얼굴을 확인한 '춘향'의 놀란 표정이 표현되어 있지만, '춘향'의 속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만화에서 '춘향'의 시선 변화는 효과선을 통해 표현된다.
④ <보기>에서 '몽룡'의 얼굴을 확인한 '춘향'이 깜짝 놀라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고 표현하였고, 만화에서도 '춘향'이 놀란 표정으로 '몽룡'을 바라본다. 따라서 <보기>와 만화 모두 '춘향'이 '어사또'의 정체를 몰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⑤ 만화에서 '춘향'은 '어사또'의 정체가 '몽룡'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놀라지만, 정체를 속인 '몽룡'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지는 않았다.

- 17 '춘향'과 '몽룡'이 재회하는 장면은 기본 배경을 화려한 색으로 처리하고, 색이 퍼지는 듯한 효과를 주어 재회의 기쁨과 감동을 강조하고 있다.
- 18 '어사또'가 남원에서 일을 처리한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간다는 내용을 요약하여 ㉠으로 제시하였다.
- 19 ㉠은 서술자가 개입하여 '춘향'과 '몽룡'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이다.
- 20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인 「춘향전」의 결말과 마찬가지로 시련을 겪던 '춘향'이 '몽룡'과 혼인하여 다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백년 해로를 한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는다. 이처럼 결말 부분에서 인물들의 행복한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고전 소설의 특징 중 하나이다.
- 21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하면 생동감 있는 표현과 시각적 효과로 읽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으며,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해 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22 만화에서는 그림을 통해 대사가 없는 장면도 표현할 수 있고 (ㄴ),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통해 장면의 상황과 인물의 심리를 드러낼 수 있다(ㄹ).

학습 활동

본문 136~140쪽

- 이해** 봉고파직, 절개, 탐관오리, 하늘, 크기
적용 신분 상승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36~140쪽

- | | | |
|------|------|----------------------------|
| 136쪽 | 01 ㉠ | 02 '몽룡'을 향한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 |
| 137쪽 | 03 ㉢ | 04 ㉤ |
| 138쪽 | 05 ㉠ | 06 ㉣ 07 사랑 |
| 139쪽 | 08 ㉢ | 09 ㉠ |
| 140쪽 | 10 ㉡ | |

- 01 '변학도'가 봉고파직을 당한 이유는 '춘향'을 가두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괴롭히고 수탈했기 때문이다.
- 02 이 작품은 '춘향'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내고 '몽룡'과 사랑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몽룡'을 향한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 03 만화에서 줄글은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기에 적합하며, 장면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줄글보다는 그림이나 말풍선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04 ㉠에서는 암행어사가 입을 굳게 다물고 매섭게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을 통해, '변학도'를 벌하는 상황의 엄숙한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오답풀이 ① 만화에서는 암행어사가 출두한 장면을 양쪽에 걸쳐 크게 그려 내어 강조하였다.

- ② 만화의 암행어사 출두 장면에서는 역졸들이 관아를 덮치며 부패한 관리들을 잡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그려 내었다.
- ③ 만화에서는 암행어사 출두 이후 놀란 마음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였다.
- ④ 만화에서는 ㉢처럼 하늘만 그려 놓은 칸으로 암행어사 출두 이후 상황이 한차례 정리되었음을 나타내었다.

- 05 일반적인 대사를 나타내는 둥근 모양의 말풍선과 달리, 날카롭고 비죽비죽 튀어나온 형태의 말풍선은 대사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06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할 때는,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시각화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한 작품을 감상할 때,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을 유추하는 것도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 07 '춘향'과 '몽룡'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담은 「춘향전」은 시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현재에도 꾸준히 재구성되고 있다.

- 08 이 노랫말 속 '춘향'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몽룡'을 사랑해서 그를 간절히 기다리며, '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다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원작과 달리 부귀영화를 위해 '변 사또'의 장점을 찾아보며 수청을 허락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 09 ㉠의 '모질고도 모진 형벌'을 '웃웃이 견뎌 내'는 모습은 사랑하는 '몽룡'을 애처롭게 기다리고 있던 '춘향'의 모습이다. 따라서 ㉠은 절개를 버리고 실리를 추구하는 '춘향'의 면모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풀이 ② '춘향'이 '몽룡'을 선택한 실리적인 이유가 나타난 부분이다. 이 노랫말에서 '춘향'은 팔자를 고치려는 의도로 '몽룡'을 선택했는데, 이는 원작에서 '몽룡'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 주는 '춘향'의 모습과 대비된다.

③ 이 노랫말에서의 '실길'은 '변 사또'의 수청을 허락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역시 실리를 추구하는 '춘향'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다.

④ 이 노랫말에서의 '효녀 춘향'은 홀로 게실 어머니를 위하여 '변 사또'의 수청을 허락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신의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다. 따라서 이 부분도 '열녀 춘향'과는 대비되어 실리를 추구하는 '춘향'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⑤ 이 노랫말에서 '춘향'의 선택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다. 원작의 '춘향'과 달리 '변 사또'의 수청을 허락하여 신분을 상승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춘향'의 실리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

- 10 〈보기〉의 내용 중 원작과 달라진 것은 어떠한 사건을 계기로 '콩쥐'와 '팥쥐'가 사이가 좋아진 것이다. 〈보기〉의 이러한 결말은 자매 사이의 우애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압축 파일

본문 141쪽

- ① 의태어 ② 말풍선 ③ 직접적 ④ 그림 ⑤ 흥미
⑥ 칸 ⑦ 사랑 ⑧ 공감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42~143쪽

01 ④, ⑤ 02 ③ 03 ④ 04 ① 05 ⑤ 06 '춘향'
의 지조와 절개 07 ⑤

01 (가)에서 시를 들은 사람들이 '!'로 반응한 것으로 보아, 이들은 시를 지은 걸인이 심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하고 놀랐으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02 <보기>에는 걸인의 정체를 눈치챈 사람들이 당황하여 자리를 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보기>에는 자리를 피하는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설명이나 묘사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들의 행동을 나타낸 그림과 짧은 대사로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는 시를 듣고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챈 '운봉'이 주변을 단속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운봉'이라는 특정 인물을 내세우지 않고, 상황을 파악한 사람들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④ <보기>에서는 걸인의 정체를 알아챈 사람들의 당황스럽고 긴장된 마음을, 땀을 흘리며 빨리 자리를 뜨려는 모습으로 그려 내었다.

⑤ <보기>에서는 걸인이 '어사또'임을 알아챈 사람들이 눈치를 살피며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살금살금', '쑹'과 같은 의성어와 의태어로 표현하였다.

03 (라)에는 체면을 중시하는 관리들이 엉뚱한 것을 들고 허둥대는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가)에는 절개를 지키는 '춘향'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이를 통해 드러나는 작품의 주제는 '몽룡'을 향한 '춘향'의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춘향'과 '몽룡'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춘향전」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사랑'을 소재로 해서 시대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인물들을 재해석할 수 있어서 오늘날까지 다양한 갈래로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있다.

④ (가)~(나)는 원작 소설 「춘향전」을 만화로 재구성하면서, '칸'이라는 틀 안에 여러 장면을 나누어 그림과 말풍선 등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소설을 다른 갈래로 재구성하면 그에 따라 표현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⑤ (다)에는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인 '몽룡'이 부부의 연을 맺고 행복하게 사는 결말이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신분제 사회인 조선 후기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말에는 당대 백성들의 평등한 사회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05 (나)에서 기본 배경을 밝고 화려한 색으로 처리한 것은 '춘향'과 '몽룡'의 감격스러운 재회와 행복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06 **서술형** ①과 ②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들로, '춘향'이 '몽룡'에 대한 자신의 굳은 지조와 절개를 비유한 표현이다.

07 <보기>의 '춘향'은 원작과 달리 절개보다 실리에 가치는 두는 모습을 보인다. '서희'도 거란과의 담판에서 명분을 주고 실제 이익을 얻었으므로, <보기>의 '춘향'과 비슷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효과적인 표현을 담은 글

학습 활동

본문 144~152쪽

이해 지혜, 관용 표현, 굴리다

적용 웃음, 재미

학습곡

본문 144~152쪽

146쪽 우리말, 재미

147쪽 관습적, 인상

149쪽 격언, 명언

간단 체크 활동 문제

본문 144~152쪽

144쪽 01 ② 02 ⑤

145쪽 03 ⑤ 04 ③

146쪽 05 ② 06 ②

147쪽 07 눈 08 ③ 09 ③

148쪽 10 ② 11 ③

149쪽 12 ⑤ 13 ③

150쪽 14 ⑤ 15 ① 16 소파, 냉장고, 자동차

151쪽 17 ④ 18 ④

152쪽 19 ②

01 속담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터득해 온 지혜를 담고 있으며, 우리말의 고유한 표현이 잘 나타나 있다는 특징이 있다.

02 ⑥는 ①의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속담을 활용하면 전하려는 바를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

03 <보기>에서 아이는 일의 질서와 차례를 무시하고, 성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⑤는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기>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③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

②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성급히 굴.

④ 일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것이므로, 아무리 급해도 순서를 밝아서 일해야 함.

04 <보기>는 서로 다투고 힘든 시간을 보낸 '민재'와 '영선'이 그 후 더 가까워진 과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③을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여 하면 훨씬 쉽다는 말

②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하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떤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④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말

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05 '파김치가 되다'는 '몹시 지쳐서 기운이 아주 느슨하게 되다.'의 의미로, ②와 같이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 적절하다. ④에 쓰인 '파김치가 되다'는 관용 표현이 아닌, 문장 그대로의 직접적인 의미를 드러내므로 <보기>의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다.

06 ㉠은 관용 표현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거리'라는 의미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는 문장 그대로 '가야 할 길이 멀다.'의 의미로, '거리'와 관련이 있다.

07 '눈을 붙이다'는 '잠을 자다.'의 의미, '눈이 높다'는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의 의미, '눈에 어리다'는 '어떤 모습이 잊히지 않고 머릿속에 뚜렷하게 떠오른다.'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이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 '눈'이다.

08 '입을 맞추다'는 '서로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다.'의 의미로, '그 일이 탄로 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입을 맞춰야만 해.'와 같이 쓰이는 관용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
② 여러 사람이 같은 의견을 말한다.
④ 입맛에 맞다.
⑤ 가난하여 먹지 못하고 오랫동안 굶다.

09 '배를 내밀다'는 '남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다.' 또는 '자기밖에 없는 듯 몹시 우쭐거리다.'의 의미이다. 이는 '보다 먼 곳을 향해'라는 내용과도 어울리지 않지만, '오늘의 다짐'으로 쓰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귀를 기울이다: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
② 머리를 맞대다: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
④ 손을 내밀다: 도움, 간섭 따위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게 하다.
⑤ 발을 디디다: 단체에 들어가거나 일의 계통에 참여하다.

10 ㄴ은 '우정', ㄹ은 '사랑'에 관한 격언과 명언이다. 나머지는 '도전, 노력'에 관한 것이다.

11 '영재'는 여행을 갈지 말지 망설이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영재'에게는 시간은 지체 없이 지나가므로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의 ③으로 조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실패와 성공에 관한 에디슨의 명언이다.
② 사랑에 관한 괴테의 명언이다.
④ 친구에 관한 에머슨의 명언이다.
⑤ 성품에 관한 존 맥스웰의 명언이다.

12 <보기>의 명언은 꿈을 이루기까지 과정이 힘들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⑤의 '혜나'에게 들려주기에 적절하다.

13 '똥 된다'는 것은 못 쓰게 된다는 의미의 비유적 표현이다. 따라서 ㉠은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14 (마)에서 고구마를 먹고 싶어 하는 반 아이들의 모습을 "침을 삼킨다."와 같이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15 (마)에서 글쓴이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귀하게 여기도록, 가진 게 좀 더 부족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글쓴이는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6 ㉠은 글쓴이가 아끼는 것들로, 요즘 아이들이 속제 내용에 아끼는 것이라고 써 온 '소파, 냉장고, 자동차'와 대조적이다.

17 (사)에는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말하여 내용을 강조하는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18 '아끼다 똥 된다'와 같은 익숙한 속담을 재구성하여 표현하면, 글에 재미를 더하고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할 수 있다.

19 ㉠의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뻔다'는 외부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오래전부터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해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다.

압축 파일 본문 153쪽

① 속담 ② 승능 ③ 사공 ④ 없음 ⑤ 파김치 ⑥ 눈 ⑦ 명언

시험에 나오는 소단원 문제 본문 154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② 06 갈 길이 멀다 07 ②

01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한 덩어리로 굳어져 하나의 낱말처럼 쓰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마음대로 바꾸어 쓸 수 없다.

02 게으름을 부리다가 일을 한 번에 많이 해치우려고 하는 상황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속담으로는 ③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려움.
②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
④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
⑤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

03 ㉠은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의 속담이다.

04 ④에는 관용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눈이 아프다'는 원래 문장 그대로 해석되며, 관용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귀 아프다: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 ② 배 아프다: 남이 잘되어 심술이 나다.
 ③ 머리를 식히다: 흥분되거나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다.
 ⑤ 발을 구르다: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답답해하다.

05 ‘손이 크다’는 씹씹이가 후하고 크다, 또는 수단이 좋고 많다는 의미의 관용 표현이다.

- 오답 풀이** ① 교제나 거래 따위를 중단하다.
 ③ 함께 일할 때 생각, 방법 따위가 서로 잘 어울리다.
 ④ 하던 일을 그만두다.
 ⑤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구걸하다.

06 **서술형**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은 ‘갈 길이 멀다’이다. ‘갈 길이 멀다’는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많이 남아 있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07 ②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가게 되고 결국 과거의 일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보기>의 학생에게 해 줄 조언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는 모두 시간의 소중함을 전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어휘력 키우기

본문 155쪽

01 ⑤ 02 맥, 모셔다드렸다.

01 ‘오래불망(寤寐不忘)’은 자나 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이다. ⑤에는 문맥상 ‘백년해로(百年偕老)’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2 ‘집’과 ‘데려다주다’의 높임말은 각각 ‘댁’, ‘모셔다드리다’이다.

시험에 나오는 대단원 문제

본문 156~158쪽

01 ③ 02 ② 03 ① 04 ‘어사또’의 정체를 눈치챘기 때문이다. 05 ⑤ 06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만 글자체를 다르게 썼다. 07 ⑤ 08 ④ 09 등잔 밑이 어둡다 10 ⑤ 11 ㉠, ㉡, ㉢ 12 ㉠은 신체 일부인 ‘손’의 크기가 크다는 의미로 낱말 그대로의 의미이나, ㉡은 씹씹이가 후하고 크다는 의미로 관용 표현이다. 13 ② 14 ①

01 (가)의 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운봉’이 ‘어사또’가 단순한 절인이 아님을 눈치채고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시는 내용 전개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한다.

02 (다)에서 하늘만 그려 놓은 칸은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암행어사 출두로 시끌벅적했던 상황을 정리하여, 다음 사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다.

03 (나)에서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관리들이 혼비백산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보여 주고 있다.

04 **서술형** ‘운봉’은 ‘어사또’가 지은 한시를 듣고 그가 단순한 절인이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공형’을 불러 암행어사의 출두에 대비하려 한다.

05 원작인 <보기>는 소설로,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한다. 반면 만화에서는 말풍선을 이용하여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06 **서술형**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까?”는 ‘춘향’의 마음을 떠보려는 ‘어사또’의 말로, 글자체를 다르게 씌어서 그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07 (다)는 이 작품의 결말로,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 부분이다. 서술자는 글 속에 등장하여 ‘춘향’의 높은 절개, 그리고 ‘춘향’과 동행하여 서울로 가는 ‘어사또’의 모습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있다.

08 ㉠은 ‘춘향’에게 시련을 주는 대상을, ㉡은 시련의 상황을, ㉢은 구원자를 의미한다.

09 **서술형** ‘등잔 밑이 어둡다’는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10 ⑥는 실수를 깨닫고 다시 노력하여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이므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③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여러 사람이 저마다 제 주장대로 배를 몰려고 하면 결국에는 배가 물로 못 가고 산으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1 **서술형** ‘시간 가는 줄 모르다’는 ‘몹시 바빠 진행되거나 어떤 일에 몰두하여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알지 못하다.’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이다.

- 오답 풀이** ㉠은 속담, ㉡은 명언에 대한 설명이다.

12 **고난도 서술형** ㉠은 낱말 그대로의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앞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따라 ‘발이 크다’, ‘키가 크다’와 같이 다른 말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 이미 한 덩어리로 굳어져 쓰이기 때문에 다른 말과의 결합이 불가능한 관용 표현이다.

평가 목표	관용 표현의 특징과 구체적인 의미 이해하기
채점 기준	✓ ㉠과 ㉡의 구체적인 의미의 차이점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생]
	✓ ㉠과 ㉡의 의미 중 하나만 바르게 쓴 경우 [중]
	✓ ㉠과 ㉡의 의미 모두를 바르게 쓰지 못한 경우 [하]

13 ②의 ‘배를 두드리다’는 ‘생활이 풍족하거나 살림살이가 윤택하여 안락하게 지내다.’의 뜻을 지닌 관용 표현이 아닌, 문장 그대로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14 조연의 대상이 오디션에 떨어지고 속상해하는 상황에 있으므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조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늘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이 적절하다.

정답과 해설

1 소통하고 공감하는 삶

[1]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간단 복습 문제

본문 03쪽

꼭지 시험	01 서술자	02 1인칭 주인공	03 관점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어휘 시험	01 분개하다	02 갈취하다	03 농치다	04 ㉠
05 ㉡	06 ㉢	07 ㉣	08 ㉤	09 부득불
10 오리무중				

- 03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작품 속의 세계도 서술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다.
- 06 '엄마가 '나'에게 온 '미옥'의 편지를 압수하고 안 돌려준 진짜 이유는 '나'가 연애하느라 공부에 소홀할까 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 09 '불가분'은 '나눌 수가 없음.'을 의미하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하지 아니할 수 없어, 또는 마음이 내키지 아니하나 마지못하여'를 의미하는 '부득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10 '침침산중'은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을 의미하므로, 제시된 문장에는 '오 리나 되는 길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인 '오리무중'이 들어가야 한다.

예상 적용 소단원 평가

본문 04~05쪽

01 ㉣	02 ㉤	03 '나'가 공부에 안 하고 여자에한테 신경 쓸 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04 ㉣	05 ㉢	06 ㉤	07 '미옥'이 내 마음을 알려주지 않아 울.	08 ㉢
------	------	--	------	------	------	---------------------------	------

-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따라서 작품의 중심 인물이 자신의 관점에서 사건의 내막이나 다른 인물들의 심리를 추측하여 서술한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작품 내에서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한다.
 ② 작품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이 중심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③ 모든 등장인물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⑤ 객관적인 내용 전달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의 특징이다.
- 02 (나)로 보아, '나'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미옥'에게 편지를 보냈다. 따라서 '아버지'는 '나'가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 03 서술형 (라)에서 '나'는 '엄마'가 '미옥'이 보낸 편지를 압수한 까닭이 여자 친구가 '나'의 공부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 04 '나'는 '아저씨'를 무섭게 생각하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방해가 된다고 여긴다. 또한 처음 본 사람들이 일가라고 반가워하는 것에 ㉠처럼 속으로 비아냥거리고 있다. 따라서 이는 냉소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 05 작가는 이 글을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독자들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 06 <보기>는 서술자를 '나'에서 '엄마'로 바꾸어 쓴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춘기 소년인 '나'의 순수한 시선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효과를 없애는 대신에, 어른인 '엄마'의 감정을 더욱 자세하게 드러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전달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작가의 주제 의식을 직접 드러내는 것은 소설이 아니라 수필과 같은 갈래이다.
 ③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등을 제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만을 묘사할 경우 독자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을 상상해 보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④ 사춘기 청소년 서술자의 순수한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보기>가 아니라 (가)의 시점에 해당한다.
- 07 서술형 (라)에서 과거의 '나'는 '미옥'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원통해서 울었지만, 현재의 '나'는 '아저씨'의 외로움이 전해져서 그것을 느끼며 운다고 하였다.
- 08 ㉠, ㉡, ㉢, ㉣은 모두 '나'의 일가인 '아저씨'를 가리킨다. '아저씨'와 '아버지'가 사촌 관계인 것은 맞지만, 문맥상 ㉣은 '아저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촌지간을 가리킨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06~07쪽

- 1단계 01 1인칭 주인공 시점 02 예의범절 03 갈취
 04 꽃 05 었드려 절받기
- 2단계 06 '나'가 좋아하는 '미옥'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혹은 '나'가 '미옥'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07 • ㉠: '나' - 집을 나간 '엄마'가 그림고, '미옥'과의 관계가 끝나 아쉽고 막막하다. / • ㉡: '아저씨' - '엄마'가 집을 나간 현재의 상황이 답답하고, '나'의 가족에게 미안하다. 08 • 시적 화자와 '민지'의 관점을 비교하여 '민지'의 순수한 성격을 더욱 강조한다. / • 시적 화자의 깨달음을 제시하여 독자의 성찰을 이끈다. / • '민지'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따뜻한 시선이 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



3단계 09 • ㉠: '미옥'을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음. ㉡: '아저씨'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림. / •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 '나'가 사건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다. **10** • 시적 화자가 하지 못한 말: 그건 잡초야 / • 이유: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기도 했고, 어른으로서 세상의(세속적인) 때가 묻은 자신의 생각이 부끄럽기도 했기 때문이다.

1단계

- 01** (가)~(마)는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주로 서술된다.
- 02** (나)에서 '아저씨'가 '나'에게 절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볼 때, '아저씨'는 예의범절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3** (다)에서 '엄마'가 '나'에게 온 편지를 압수한 행동을 두고 '아버지'가 '갈퀴'라고 표현하면서, '엄마'와 '아버지'의 다툼이 커지고 있다.
- 04** (바)에서 '민지'는 '질경이, 나성개, 토끼풀, 억새'와 같은 풀들을 '꽃'이라고 여기며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05** (나)에서 '아저씨'는 절을 할 마음이 없는 '나'에게 조선 민족의 인사법을 운운하며 절을 요구하여 받고자 한다.

2단계

- 06** (가)에서 '나'는 '미옥'에게 쓴 편지를 부치러 가는 길에 '미옥'이 사는 동네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마을 안 골목을 뚫으며 자전거 페달을 느리게 밟고 있다. 이는 혹시라도 '미옥'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 07** ㉠은 '나'의 한숨 소리로, 집을 나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데서 느끼는 아쉬움, 막막함에서 나온 것이다. 반면 ㉡은 '아저씨'의 한숨 소리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엄마'가 집을 나간 것과 관련하여 '나'의 가족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미안함에서 나온 것이다.
- 08** (바)의 시적 화자는 따뜻한 시선으로 '민지'를 바라보고 있으며, 순수하게 자연과 소통하는 '민지'의 말에 감동하여 세상의 때가 묻은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적 화자의 태도는 시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독자의 성찰을 이끌며, '민지'의 순수함을 강조한다.

3단계

- 09** 과거의 '나'는 '미옥'과의 관계가 끝나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곧 고등학생이 되는 현재의 '나'는 더 이상 '미옥' 때문에 울지 않고,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던 '나'는 예전에는 못마땅하게 여기던 '아저씨(타인)'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기친척의 의미가 점점 사라져 가는 요즘 세대 속에서, 가족 이기주의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평가 목표	서술자 설정의 효과 이해하기
채점 기준	✓ ㉠과 ㉡,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0점]
	✓ ㉠과 ㉡,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를 모두 썼으나 그 중 하나의 내용이 미흡한 경우 [15점]
	✓ ㉠과 ㉡, '나'를 서술자로 설정한 이유 중 하나만 바르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10** (바)에서 '민지'는 질경이나 나성개, 토끼풀, 억새와 같은 풀들을 '꽃'이라고 여기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반면 어른인 시적 화자의 눈에는 그것들이 그냥 풀로 보이거나 잡초로 보일 뿐이다. 시적 화자는 '민지'의 순수한 마음을 지켜 주고 싶은 마음과, 어른인 자신의 생각이 세속적이고 때가 묻었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민지'에게 '그건 잡초야'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둔다.

평가 목표	시적 화자의 심리 및 태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시적 화자가 하지 못한 말과 그 말을 하지 못한 이유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0점]
	✓ 시적 화자가 하지 못한 말을 썼으나, 그 이유를 쓰지 못한 경우 [10점]
	✓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5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공감하며 듣기

간단 복습 문제

본문 09쪽

꼭지 시험	01 ×	02 ○	03 ×	04 이해	05 의사소통
06 협력적	07 ㉠	08 ㉡	09 ㉢	10 ㉣	11 ㉤
12 처지	13 공감				
어휘 시험	01 의사소통	02 맥락	03 맞장구	04 반응	
05 ㉠	06 ㉢	07 ㉤			

- 01** 원만하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보다 상대의 말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 03**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장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해 주려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

예상 역량 소단원 평가

본문 10쪽

01 ㉠	02 ㉡	03 소극적 들어 주기	04 ㉢	05 ㉣
06 ㉤				

- 01** 공감적 듣기란 상대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이다.

02 '황희 정승'은 처음 온 이웃은 제사 지내기를 원하고, 다음에 온 이웃은 제사 지내기를 원하지 않음을 파악하고, 두 이웃의 마음을 헤아려 각자에 맞게 대답한 것이다. '황희 정승'이 사람이 아이를 낳은 것과 개가 새끼를 낳은 것을 다르게 여겨서 각기 다른 대답을 한 것은 아니다.

- 오답풀이** ① 처음 온 이웃은 제사를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어도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② 다음에 온 이웃은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개가 새끼를 낳았으니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물었다.
 ③ '황희 정승'은 제사를 지내고 싶은 이웃에게는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은 이웃에게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였다.
 ④ '황희 정승'이 두 이웃에게 각기 다른 대답을 한 것은 두 이웃의 마음을 각각 헤아렸기 때문이다.

03 **서술형**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감적 듣기 방법은 소극적 들어 주기이다. 소극적 들어 주기 방법에는 상대와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기,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맞장구치기 등이 있다.

04 ①~④는 공감적 듣기 방법 중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하고, ⑤는 적극적 들어 주기(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기)에 해당한다.

05 '윤하'는 노래 대회에서 탈락해 속상해하고 있으므로 '윤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공감하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④는 '윤하'의 마음에 공감하는 반응이라기보다는 '윤하'가 탈락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반응이다.

06 공감적 듣기를 할 때는 상대의 말을 우호적인 태도로 끝까지 잘 들어 주면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 상대의 말을 예측하며 간절하게 대화하는 것은 이러한 공감적 듣기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11쪽

1단계 01 공감 02 소극적 들어 주기

2단계 03 윤하야, 민재의 상황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민재의 말을 공감하며 들어 주렴. 04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듣는다. /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맞추면서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해 준다. / 상대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3단계 05 • 문제점: 동생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고 제 생각만 말했다. / 동생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말했다. / • 바꾼 대답: 그러니까 네 말은 축구부에 들어가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는 거구나. 06 상대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1단계

01 상대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반응이나 태도를 '공감'이라고 한다.

02 공감적 듣기는 크게 소극적 들어 주기와 적극적 들어 주기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들어 주기는 상대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상대와 눈을 맞추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맞장구치는 등과 같이 대화의 맥락을 조절해 주는 방법이다.

2단계

03 <보기>에서 '윤하'는 '민재'의 말을 공감하며 듣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만 신경 쓰며 우울해지니까 떡볶이나 먹으러 가고 말하고 있다.

04 제시된 학생의 경험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듣는 사람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와 대화할 때는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3단계

05 <보기>에서 동생은 축구부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형에게 조언을 부탁했지만, 형은 동생의 관심사나 능력을 무시하고 공부에나 신경 쓰라며 비난하는 대답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평가 목표	공감적 듣기의 필요성 파악하기
채점 기준	✓ 형의 듣기 태도의 문제점과 바꾼 대답을 모두 바르게 쓴 경우 [30점]
	✓ 형의 듣기 태도의 문제점과 바꾼 대답 중 하나를 잘못 쓴 경우 [10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06 ㉠에서 '지연'은 '현정'의 감정에 공감하면서도, 어떤 일에 몰두하면 중요한 문제를 잊을 때도 있다며 문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있다. 이는 '현정'에게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엄마와의 대화라는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돕는다.

평가 목표	적극적 들어 주기의 효과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구체적인 듣기 방법과 효과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20점]
	✓ 구체적인 듣기 방법과 효과 중 하나만 바르게 쓴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용 대단원 평가

본문 12~15쪽

01 ② 02 ④ 03 ④ 04 '아저씨'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때문이다. 05 '아저씨'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06 ③ 07 남의 외로움 08 ④ 09 ② 10 ② 11 ㉠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에 공감하며 흘린 것이고, 작년의 '눈물'은 자신의 슬픔 때문에 흘린 것이다.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④ 17 ④ 18 ㉠: 등장인물의 상황, ㉡: 등장인물을 보며 느낀 점

01 이 글에서 ‘나’는 중심인물로, ‘아저씨’가 집에 머물다 간 일, 좋아하는 ‘미옥’과 이루어지지 못한 일 등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청소년의 눈을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 사회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③ 이 글은 ‘일가’라는 반어적 제목을 사용하였고, 청소년의 순수한 시선으로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부정적인 인물의 모습이 아니라, 가족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④ 이 글에서 가족들이 ‘아저씨’와 직접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며 회해하는 과정도 없다.

⑤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므로, 작품 내의 주인공이 자신이 겪은 사건을 자신의 관점에서 서술한다.

02 (가)에서 ‘나’는 ‘미옥’과 결혼하고 싶어서 나이를 빨리 먹고 싶지만, 이제 겨우 열여섯 살이라는 게 분하고 원통할 지경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런 말을 편지에는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03 (나)에서 ‘나’는 ‘아저씨’의 복한 말투를 듣고 ‘아저씨’를 간첩이라고 오해하며 무서워한다. → (다)에서 ‘나’는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요구도 많은 ‘아저씨’가 불편하고 못마땅하다. → (라)에서 ‘나’는 ‘아저씨’를 생각하고 미안해하며 ‘눈물’을 흘린다.

04 **서술형** (라)에서 지금의 ‘나’는 ‘아저씨’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아저씨’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저씨’가 어느덧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표현한 말이다.

05 **서술형** <보기>는 (가)~(나)의 서술자를 ‘아저씨’로 바꾸어 쓴 것이다. <보기>에서는 ‘아저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으므로 ‘아저씨’의 심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있다.

06 (다)에서 ‘나’는 ‘엄마’와 ‘아버지’가 팽팽히 고집을 부리다가 화해할 때의 분위기를, 얼음이 녹아 풀리는 ‘해빙’과 온갖 꽃을 의미하는 ‘백화’에 비유하고 있다.

07 **서술형** [A]에는 자신의 외로움 때문에 우는 사람은 아직 어리고, 남의 외로움 때문에 울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한 것이라고는 의미가 담겨 있다.

08 ‘갈취’는 ‘엄마’와 ‘아버지’ 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말이다.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 ① ‘그런데’는 전환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아저씨’가 등장하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② ‘한 남자’는 일가인 ‘아저씨’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고 독자들도 호기심을 느낄 수 있다.

③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엔벤’에서 온 것으로만 안다는 ‘아저씨’의 말에, ‘엄마’가 잠시 부끄러움을 느껴서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⑤ ‘나’가 ‘아저씨’에 대해 생각하면서 자신의 성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 작품의 성장 소설로서의 성격을 엿볼 수 있다.

09 (가)~(다)에서는 서술자인 ‘나’가, (라)에서는 시적 화자인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10 (나)에서 ‘아저씨’는 하얀 달빛에 젖은 과수원을 보며 영화『림해설원』의 한 장면 같다고 감탄하고 있다. 따라서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고난도 서술형** 작년의 ‘나’는 ‘미옥’과의 관계가 끝난 데 대한 슬픔 때문에 우는 미성숙한 존재였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아저씨’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올 정도로 성숙했다.

평가 목표	등장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채점 기준	✓ ①과 작년의 ‘눈물’의 의미를 비교하여 바르게 쓴 경우 [상]
	✓ ①과 작년의 ‘눈물’의 의미를 비교하여 썼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 ①과 작년의 ‘눈물’의 의미 중 하나만 바르게 쓰고 그 비교도 잘못된 경우 [하]

12 (라)의 마지막 행은 ‘민지’의 순수함을 통해 시적 화자가 성찰한 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민지’의 실제 행동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13 공감적 듣기는 말하는 이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말하는 이의 상황에 감정을 이입하며 반응하는 방법이다. 공감적 듣기는 말하는 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14 이 대화에서 동생은 자신의 고민을 형에게 말하고 조언을 구했다. 그러나 형은 판짚을 하거나, 동생의 심정이나 상황에 공감하지 않고 동생을 비난하는 투로 자신의 생각만을 말했다.

15 ①, ③, ④, ⑤는 상대가 자기 생각을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②는 상대가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16 친구와 함께 읽을 문학 작품을 선정하고, 선정한 문학 작품을 가볍게 훑어보며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은 ‘읽기 전 활동’에 해당한다.

17 책의 표지나 삽화에는 이야기의 주요 장면이 표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책의 제목과 차례에는 이야기의 주요 제재와 흐름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 책 속에 담긴 이야기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책의 분량을 확인하는 것은 읽기 계획을 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② 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전에, 책의 분야나 전문성 정도 등을 파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③ 작가의 관심사나 취미를 파악하면 작품 경향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책에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전개될 수 있다. 또한 책의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다.

⑤ 최근의 사회적 논쟁거리를 찾아보는 것은 자신이 어느 분야의 책을 고를지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18 **서술형** ㉠의 내용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보이다. ㉡의 내용은 책을 읽으며 등장인물에 대해 느낀 점이다.

2 놀라운 한글, 바른 말글살이

[1] 한글의 창제 원리

간단 **복습** 문제

본문 17쪽

- 꼭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어휘 시험 01 가획 02 상형 03 반포 04 합성 05 창제
06 한계 07 실용 08 원리 09 표기

- 03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글자이고, 모음 기본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 05 모음 기본자를 한 번 합성하여 만든 글자를 초출자라고 하는데 초출자에는 ‘ㄴ, ㄷ, ㄹ’이 있다.
- 06 ‘강’이라는 단어를 ‘ㄱ ㅏ’이라고 쓰는 것이 풀어쓰기이고, ‘강’이라고 쓰는 것이 모아쓰기이다.
- 06 ‘경계’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를 의미하고, ‘한계’는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을 의미하므로 ‘한계’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8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를 의미하고, ‘원료’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를 의미하므로 ‘원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예상 적용 **소단원 평가**

본문 18~19쪽

- 01 ④ 02 ② 03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04 ② 05 ④ 06 ④ 07 한글은 체계적인 글자이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다. 08 ① 09 ⑤
- 01 모음 기본자도 상형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데,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ㄴ’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ㄷ’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ㄹ’은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 02 ‘ㅅ’은 이[齒]의 모양을 본뜬 잇소리이다.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혀소리는 ‘ㄴ’이다.
- 03 **서술형** 세종 대왕은 우리말이 중국어와 달라 중국의 글자인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말을 표기할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세종 대왕이 중국 문자에 기대지 않고 우리만의 고유한 문자인 한글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에서 자주정신을 알 수 있다.
- 04 ㉠과 ㉡에는 모두 어떤 물건(대상)을 본뜬다는 의미의 ‘상형’이 들어가야 한다.

- 05 <보기>의 글자들은 자음 기본자에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만든 자음자들로, 소리의 세기가 세지는 것을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①, ③ 자음 기본자를 위아래로 쓰거나 나란히 써서 글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보기>의 글자와는 관련이 없다.

② 자음 기본자 ‘ㄱ, ㄴ, ㄷ, ㄹ’만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⑤ <보기>의 글자들은 자음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든 것들로, 여러 발음 기관에서 소리 나는 글자들이 함께 제시되었다.

- 06 ①의 ‘ㄴ, ㄷ, ㄹ’은 모음 기본자인 ‘ㅏ’와 ‘ㅑ’와 ‘ㅓ’를 한 번만 합성하여 만든 초출자이고, ②의 ‘ㄴ, ㄷ, ㄹ’은 초출자에 ‘ㅇ’을 합성하여 만든 재출자이다.

- 07 **서술형** (나)에서 체계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한글 모음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는데, 세종 대왕은 이러한 원리를 익히면 사람들이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08 ㉠은 발음 위치가 비슷한 글자들은 기본자에 획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모양도 비슷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본자인 혀소리 ‘ㄴ’과 이에 획을 더하여 만든 ‘ㄷ, ㄹ’이 이 예에 해당한다.

- 09 ‘ㅁ, ㅂ, ㅃ, ㅅ’은 이미 만든 자음자를 위아래로 잇대어 합쳐서 다른 자음자를 만든 것이다. ‘ㅈ, ㅊ, ㅊ, ㅊ, ㅊ’은 이미 만든 자음자인 ‘ㄱ, ㄷ, ㄹ, ㅅ, ㅅ’을 옆으로 나란히 써서 만든 자음자이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20~21쪽

1단계 01 중국의 반발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02 애민 정신, 실용 정신 03 상형 04 ㉠: ㄷ, ㄹ ㉡: ㅅ 05 (음절 단위)로 글자를 모아쓴다.

2단계 06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하였다. 07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뜨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초출자는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하여 만들었고, 재출자는 초출자에 ‘ㅇ’을 다시 합성하여 만들었다. 08 다시 쓴 문장: 나는 학교에 일찍 왔다. / 장장: 문장을 읽기가 편하고 문장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09 자음자는 획을 더하여 거센 느낌을 표현하고 비슷한 발음 기관에서 나는 소리는 글자 모양도 비슷하게 나타내었다. 모음자는 합성의 방식으로 초출자와 재출자를 만들었다. 이렇듯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체계적인 글자로 평가받는다. 10 한글 모음은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지만 로마자의 모음은 한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된다. 이처럼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여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에 유리하다.

1단계

- 01 (가)에 따르면 일부 신하는 한자를 쓰지 않고 독자적인 글자를 만들었을 때, 중국이 반발할 것을 염려하여 한글의 창제를 반대하였다. 이는 대외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02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책을 읽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데서 ‘애민 정신’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편히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 데서 ‘실용 정신’을 확인 할 수 있다.

03 모음자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으로 볼 때, 상형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04 자음자 ‘ㄱ, ㄷ, ㅌ, ㅂ, ㅍ, ㅈ, ㅊ, ㅎ’은 자음 기본자에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이러한 원리를 가획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글자 모양도 비슷하다. 예외적으로 이체자 ‘ㅇ, ㄹ, ㄴ’은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 만들었지만 소리가 세지는 것은 아니다.

05 다른 문자는 자음과 모음을 늘어놓는 풀어쓰기 방식을 사용하지만,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음절로 결합하는 모아쓰기 방식을 사용한다.

2단계

06 제시된 만화에서 백성은 한자를 몰라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짓고 억울하게 벌을 받고 있다. (가)에서 세종 대왕은 이처럼 백성들이 글자를 알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한글을 창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07 모음의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드는 상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 기본자를 한 번만 합성하여 초출자를 만들었고, 이 초출자에 ‘.’를 다시 합성하여 재출자를 만들었다.

08 제시된 문장을 모아쓰기 방식으로 다시 쓰면 ‘나는 학교에 일찍 왔다.’이다. 이렇게 글자를 음절 단위로 모아쓰게 되면 단어나 문장의 뜻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문장을 읽기가 편하다.

3단계

09 (다)에서 한글의 자음자는 글자 모양과 소리를 관련지어 표현하고, 비슷한 발음 기관을 사용하여 내는 소리는 글자 모양도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라)에서 한글의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성하여 초출자를 만들고, 초출자에 다시 ‘.’를 더하여 재출자를 만드는 방법을 취하였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글의 자음자와 모음자는 일정한 원리에 따라 짜임새 있게 글자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

평가 목표	한글 창제 방법의 체계성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자음자와 모음자의 창제 원리를 모두 제시하여 한글의 체계성을 서술한 경우 [20점]
	✓ 자음자와 모음자 중 하나의 창제 원리만 제시하여 한글의 체계성을 서술한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10 한글은 하나의 문자가 하나의 소리를 내는 반면 로마자는 하나의 문자가 다양한 소리를 낸다. 따라서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는 한글이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 등에 유리하다.

평가 목표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의 우수성 이해하기
채점 기준	✓ 한글이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 유리한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20점]
	✓ 한글과 로마자의 발음 비교 내용과, 한글의 문자와 소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만 서술한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올바른 발음과 표기

간단 복습 문제

본문 23쪽

꼭지 시험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무릅], [비] 09 [무르페], 모음 10 닫혀서
11 맞혔다 12 반드시 13 붙이지 14 없었다 15 된다
며 16 웬일 17 여덟해
어휘 시험 01 합리성 02 표준어 03 보완 04 원칙
05 음절

02 우리말에서 받침소리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 7개뿐이다. 이 밖의 받침은 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

03 ‘짧다’는 [점:따]로 읽고, ‘울다’는 [음:따]로 읽는다. 따라서 이 두 단어의 겹받침은 ‘ㄹ’로 발음하지 않는다.

04 용언의 어간 끝소리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예를 들어 ‘맑게’는 [말:게]로 발음한다.

11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를 의미하고,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 또는 그렇게 하다.’를 의미하므로 ‘맞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예상 역량 소단원 평가

본문 24~25쪽

01 ② 02 ⑤ 03 ③ 04 발음을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표준 발음법이 필요하다. 05 ① 06 ④ 07 ① 08 ⑤ 09 ③ 10 ④
11 ⑤ 12 ① 13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

01 ① [지블], ③ [오슬], ④ [바:게], ⑤ [부어:게서]로 발음한다.

02 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된다. 따라서 ‘찾다’는 [찰:따]로 발음해야 한다.

03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으로 발음하지만, 용언의 어간 끝소리 ‘ㅃ’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따라서 ‘맑다’는 [막:따]로, ‘맑고’는 [말:꼬]로 발음해야 한다.

04 **서술형** ‘빛을’은 [비:출]이라고 발음해야 하는데, 남학생이 [비:출]이라고 잘못 발음하였기 때문에 여학생이 이를 ‘빛을’로 이해하였다. 올바른 발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표준 발음법이 필요하다.

05 '희망'의 '희'는 자음 'ㅎ'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에 '니'가 쓰인 것이므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해야 한다.

오답풀이 ② '의리'는 단어의 첫음절로 '니'가 왔으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여 [의리]로 발음한다.

③, ⑤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i]로 발음해도 되고 [i]로 발음해도 되므로 [허비/허비], [무성의/무성이]로 발음한다.

④ 조사 '의'는 [-i]로 발음해도 되고 [e]로 발음해도 되므로 [우리의/우리에게]로 발음한다.

06 '니'는 이중 모음이므로 [-i]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음이 어려워 예외적인 발음도 허용한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의의'는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의 의이], [민주주의에 의의], [민주주의에 의이]로 발음할 수 있다. '의의'는 단어의 첫음절로 온 앞의 '의'는 [-i]로만 발음하고, 뒤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이 아니므로 [i], [-i]로 발음할 수 있다.

07 제시된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나는 기를 건파가 본 하얀 꼬치/꼬체 이르미 궁금행따]이다. 따라서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것은 '나는, 본, 하얀'이다.

08 '선희'가 발음은 같은데 표기와 뜻이 다른 '다치다'와 '달히다'를 혼동하여 잘못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09 '마치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의 뜻이므로, ③에는 '맞히다'(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가 사용되어야 한다.

오답풀이 ① 견히다: 구름이나 안개 따위가 흩어져 없어지다.

② 부딪히다: '무엇과 무엇이 힘 있게 마주 닿거나 마주 대다. 또는 닿거나 대게 하다.'는 뜻의 '부딪다'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④ 반드시: 틀림없이 꼭

⑤ 부치다: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내다.

10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따라서 ④는 '않았다'로 고쳐 써야 한다.

11 ① '날아'는 [나아]로 발음하고, ② '희곡'은 [히곡]으로 발음한다. ③ '어떡해'가 맞는 표기이고, ④ '웬지'가 바른 표기이다.

오답풀이 ①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ㅎ'을 발음하지 않으므로 '날아'는 [나아]로 발음한다.

② 자음을 첫소리로 갖는 '니'는 [-ni]가 아니라 [ni]로 발음하므로 '희곡'은 [히곡]으로 발음한다.

③ '어떡해'는 '어떻게 해가 줄어든 말로 맞는 표기이다.

④ '웬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로, '왜 그런지 모르게',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의미의 맞는 표기이다.

12 겹받침 '리, 뻐, 뻬'는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일반적으로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인 [ㄱ, ㄷ, ㅂ]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홍장난'은 [혹장난], '울조릴'은 [움조릴], '쫓고'는 [점:꼬]로 발음된다.

13 **서술형**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26쪽

1단계 01 표준어 02 ㄱ, ㄴ, ㄷ, ㄹ, ㅁ, ㅂ, ㅇ

2단계 03 [저히는 허귀한 무니를 지닌 나비를 찰꼬 시퍼요]

04 ㉠: [i]로 발음할 수 있다. / ㉡: [e]로 발음할 수 있다.

05 <보기>의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나는 반드시 그 꼬치/꼬체 이르름 아라내겐따]이다. 이처럼 모든 말을 소리 나는 대로만 쓰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이 필요하다.

3단계 06 '않 좋아하는데'의 '않'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므로 '안'으로 고친다. '안았다'는 '아니하였다'가 줄어든 말이므로 '아니하-'를 줄여 '않았다'로 고친다. '땀다며'는 '되었다며'로 쓸 수 없으므로 '되'로 적어서 '땀다며'로 고친다.

1단계

01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른다. 다만 여러 형태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한다.

02 한글에는 다양한 받침이 쓰이지만,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ㅊ'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2단계

0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i]로 발음하므로 '저희'는 [저히]로, '희귀한'은 [히귀한]으로, '무늬'는 [무니]로 발음한다. 받침 'ㅈ'은 대표음 [ㄷ]으로 발음되므로 '찾고'는 [찰꼬]로 발음한다. '싫어요'는 받침 'ㅊ'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요'와 결합되는 경우이므로 제 음 그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시퍼요]로 발음한다.

04 ㉠의 예에서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i]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의 예를 통해 조사 '의'는 [e]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보기>의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낱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낱말도 있다. 그런데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지 않는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경우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한글 맞춤법이라는 원칙을 세워서 그에 맞게 표기해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

3단계

06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이고,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되-'는 동사 '되다'의 어간이고, '땀'은 어간 '되-'와 어미 '-어'가 결합된 '되어'가 줄어든 말이다.

평가 목표	‘안’과 ‘않’, ‘되’와 ‘돼’ 구분하여 사용하기
채점 기준	✓틀린 세 부분을 모두 바르게 고치고, 고친 이유 세 가지를 모두 바르게 쓴 경우 [30점] ✓틀린 부분을 고친 내용이나 고친 이유를 잘못 쓴 경우 [10점씩 감점]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적중 대단원 평가

본문 27~29쪽

01 ⑤ 02 ② 03 ③ 04 ② 05 공통점: ㉠과 ㉡ 모두 상형의 원리를 이용하여 글자를 만들었다. / 차이점: ㉠은 소리를 내는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본뜬 것인데, ㉡는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06 ① 07 ㉠: ㄷ, ㉡: ㄷ: ㅌ 08 ③ 09 ② 10 ⑤ 11 ① 12 ④ 13 ③ 14 ① 15 ⑤ 16 단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한 글자를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정확한 뜻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단어의 뜻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어법에 맞도록 한 것이다.

- 01 (가)에서 우리말과 중국어가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으므로, 중국어의 문장 구조를 참고하여 한글을 창제하였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
- 02 한글을 만들기 전에는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우리의 고유한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 썼다. 하지만 우리말과 중국어는 말소리와 문장 구조가 달라서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03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든 목구멍소리이다.
- 04 ㉠은 한글을 창제하기 전 한자를 빌려 사용했으나 우리말을 표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된 한글 창제 정신은 세종 대왕이 중국의 한자와 다른 문자를 새롭게 만들려고 했던 ‘자주정신’이다.
- 05 **서술형**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는 상형, 가획, 합성 등이 있다. 자음 기본자는 발음 기관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모음 기본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뜬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
- 06 (가)에는 획을 더해 소리가 더 세지는 것을 나타내는 자음자의 창제 원리를 통해, 소리의 성질을 글자에 반영하는 한글의 특성이 드러난다. (나)에는 모음자를 만드는 방법을 통해 한글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임이 드러난다. (다)에서는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하여 다양한 글자를 많이 만들어 쓸 수 있는 한글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다)의 내용을 통해 한글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창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는 (가)~(다)를 통해 알 수 없다.
- 07 **서술형** 모음자는 기본자 ‘ㅏ, ㅑ, ㅣ’를 먼저 만든 후, ‘ㅗ’와 ‘ㅓ’를 합성하여 ‘ㅜ, ㅠ’를 만들고, ‘ㅗ’와 ‘ㅣ’를 합성하여 ‘ㅓ, ㅕ’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글자를 초출자라고 하며, 초출자에 다시 ‘ㅗ’를 합성하여 재출자 ‘ㅛ, ㅜ, ㅠ, ㅝ’를 만들었다.

08 ‘ㄱ, ㅋ, ㆁ, ㆑, ㆒’은 모두 같은 자음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방법으로 만든 글자이다.

- 오답풀이** ① 자음 기본자를 창제할 때,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드는 상형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② 모음자를 창제할 때 기본자를 결합하는 합성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또한 자음 기본자는 ‘ㄱ, ㅋ, ㆁ, ㆑, ㆒’이다.
 ④ 소리의 세기에 따라 획을 더하는 방법은 가획의 원리이다.
 ⑤ 자음자 두 개를 위아래로 잇대어 쓰는 글자는 ‘ㅄ, ㅅ’ 등이다.

- 09 ㉠은 풀어쓰기 방식으로, ㉡은 모아쓰기 방식으로 표기한 것이다. 모아쓰기 방식은 음절 단위로 글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말의 의미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10 한글은 컴퓨터 자판의 왼쪽, 오른쪽에 자음자와 모음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양손을 번갈아 가며 글자를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한글은 컴퓨터 타자 속도가 로마자보다 빨라, 정보의 빠른 전달이 중요한 정보화 사회에서 활용 가치가 높다.
- 11 우리말에서는 받침소리로 ‘ㄱ, ㅋ, ㆁ, ㆑, ㆒, ㅌ, ㅕ’의 7개 자음만 발음된다. 받침 ‘ㄱ, ㅋ’은 [ㄱ]으로, ‘ㅌ, ㅕ, ㅊ, ㅌ’은 [ㄷ]으로, ‘ㅍ’은 [ㅍ]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웃[웃], ‘키[키], ‘무릎[무릅], ‘빛다[빔파]’로 발음된다.
- 12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ㅍ]으로 발음하므로 ‘땀다’는 [땡파]로 발음해야 한다.
- 13 ‘되’로 쓸 수 있으면 ‘돼’로 적고, 그렇지 않으면 ‘되’로 적는다. ③의 ‘된다’는 ‘되언다’로 쓸 수 없으므로 ‘된다’로 적는 것이 바르다.
- 14 ‘웬일’은 ‘어찌 된 일’이라는 뜻의 말이고, ‘웬일’은 표준어가 아닌 방언이므로 ‘웬일’로 표기해야 한다.

- 오답풀이** ②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따위가 끝나다’는 뜻의 ‘마치다’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붙이다’는 ‘서로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는 뜻이다. 이 문장에서는 ‘번철이나 프라이팬 따위에 기름을 바르고 빈대떡, 전병 따위의 음식을 익혀서 만들다’는 뜻의 ‘부치다’를 사용해야 한다.
 ④ ‘안’은 ‘아니’가 줄어든 말,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다. 제시된 말은 ‘아니하였다’를 줄인 말이므로 ‘않았다’로 표기해야 한다.
 ⑤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의 의미이다. 이 문장에서는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라는 뜻의 ‘반듯이’로 표기해야 한다.

15 ‘무늬’의 ‘늬’와 같이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16 **고난도 서술형** 단어를 발음대로 ‘익파, 일꼬, 잉는’이라고 표기하면 이들이 ‘읽다’와 관련된 단어임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에서는 본래의 형태를 밝혀서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였다.

평가 목표	한글 맞춤법의 원칙 이해하기
채점 기준	✓‘어법에 맞도록 함’의 이유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어법에 맞도록 함’의 이유를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중] ✓소리대로 적었을 때의 문제점만 쓴 경우 [하]

3 매체로 보는 세상

[1] 매체의 표현과 그 의도

간단 복습 문제

본문 31쪽

- 꼭지 시험** 01 매체 02 어휘, 시각 03 수용, 의도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
 12 ⊖
어휘 시험 01 모욕 02 위협 03 신상 04 쟁점 05 일
 침 06 초점 07 노안 08 해저

06 '사이버 불링' 관련 카드 뉴스는 익명성이라는 가상 공간의 특성과 그 특성을 악용하여 특정인을 괴롭히는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08 '스마트폰 노안'을 다룬 블로그 글에 사용된 자료 중에서 그래프는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을 나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는 다른 세대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높음을 보여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01 '모욕'은 '깔보고 욕되게 함.'을 의미하고, '모함'은 '나쁜 꾀로 남을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함.'을 의미한다. '모욕'은 주로 '모욕을 주다/받다/느끼다' 등으로 쓰이고, '모함'은 주로 '모함을 받다/당하다', '모함에 빠지다' 등으로 쓰인다. 그러므로 제시된 문장에서는 '모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5 '일침'은 '침 한 대'라는 뜻으로, 따끔한 충고나 경고를 이르는 말이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본문 32~33쪽

- 01 ⑤ 02 ④ 03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고 있다. 04 ③
 05 ① 06 ① 07 ② 08 ②

01 매체에 담긴 정보를 수용할 때는 매체에 담긴 내용의 적절성 뿐 아니라, 표현 방법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02 (나)~(라)는 인터넷 매체 중 카드 뉴스에 해당한다. 카드 뉴스는 스크롤바를 내리면서 읽어야 하는 장문의 기사와 달리, 짧은 글을 사진 여러 장에 얹어서 사진을 한 장씩 넘겨 보는 형식을 취한다.

오답 풀이 ①, ② (가)는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는 내용을 사진과 글로 나타낸 광고문으로,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③ (나)~(라)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카드 뉴스로, 인터넷 매체에 해당한다.

⑤ (나)~(라)는 누리 소통망(SNS)에서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03 **서술형** (가)는 비슷한 형태의 두 문장을 나열한 광고 문구와, 스마트폰과 사람이 서로 잡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04 (라)의 오른쪽 카드는 모양과 굵기 등 글자 형태에 변화를 주어 읽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하였다(ㄴ). 왼쪽 카드는 재구성한 문자 메시지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도 사이버 불링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있다(ㄷ).

오답 풀이 ㄱ. (라)의 왼쪽 카드는 문자 메시지 대화와 글을, 오른쪽 카드는 사진과 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사진과 영상을 합성하고 있지 않다.

ㄴ. (라)의 왼쪽 카드에는 사진이 사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오른쪽 카드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 사용되었다. 이 사진들은 카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일 뿐, 뉴스의 전체 주제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05 (나)의 모델이 겪은 일, (다)에 제시된 경찰청 통계, (라)에 나타난 사이버 불링의 피해를 바탕으로 볼 때, 사이버 불링은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06 이 블로그 글은 젊은 환자들이 많이 겪고 있는 증상인 스마트폰 노안의 개념과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제목으로는 '스마트폰 노안이란 무엇인가'가 적절하다.

07 제시된 그래프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통계 자료로, 청소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비율이 높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젊은 세대에서 스마트폰 노안을 겪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가)의 내용과 관련 있으므로, (가) 뒤에 이 그래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08 ㉠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눈이 나빠진 사람을 그린 그림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 노안'이라는 문제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면서 읽는 이의 흥미를 높이려 하였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34~35쪽

1단계 01 (가): 인쇄 매체 / (나)~(다): 인터넷 매체 02 문장 표현, 시각 자료(사진) 03 위험성 04 합병증 05 사이버 불링

2단계 06 질문 형태의 비슷한 두 문장을 나열하였다. / 비슷한 형태의 두 의문문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07 내용에 대한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려 하였다. 08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를 닮으세요.

3단계 09 • 카드 ⑦의 표현 방법: 비난하는 듯한 손 모양과, 그 아래 괴로워하는 사람을 나타낸 그림을 제시함. / • 카드 ⑧의 의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의 특성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함.

1단계

- 01 (가)는 문자와 시각 자료를 사용한 광고문으로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나)는 문자, 시각 자료,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블로그 글이고, (다)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제시한 카드뉴스로 모두 인터넷 매체에 해당한다.
- 02 (가)에서는 질문 형태의 두 문장을 나열하고, 이 문구의 내용을 형상화한 사진을 활용하고 있다.
- 03 (나)에서 글쓴이는 한창나이인 젊은 세대는 눈 건강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 스마트폰 노안에는 합병증이 뒤따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스마트폰 노안이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04 ㉠에는 거북목 증후군, 두통 및 만성 피로, 어지럼증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모두 스마트폰 노안에 뒤따르는 합병증이다.
- 05 (다)에는 가상 공간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과 그 피해 사례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이 크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2단계

- 06 [A]에서는 ‘잡고’와 ‘잡혀’를 사용한 질문 형태의 비슷한 두 문장을 대구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읽는 이에게 인상 깊게 전달하고 있다.
- 07 ㉡은 스마트폰 노안이 위험한 까닭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다. 글쓴이는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스마트폰 노안에 관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고 볼 수 있다.
- 08 (다)에서는 가상 공간 내 명예 훼손과 모욕 범죄에 관한 경찰청의 통계, 대학생이 겪은 사이버 불링의 피해 사례, 사이버 불링을 장난처럼 여기는 현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이버 불링 피해자의 고통을 강조하며 끝을 맺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카드 뉴스는 의명성이 보장되는 가상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루마리 휴지’와 관련지어 보았을 때, ㉡에는 ‘예의를 지키며 스스로를 닦으세요.’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3단계

- 09 카드 ⑦에서는 사이버 불링 피해 상황을 묘사한 그림으로 그 피해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 카드 ③에서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상자로 가린 사진과, 가상 공간에서의 대화 상황을 나타낸 그림을 합성하였다. 이를 통해 가상 공간의 익명성이라는 특성과 이 특성을 악용하여 사이버 불링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려 하였다.

평가 목표	카드 뉴스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의도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카드 ⑦의 ‘표현 방법’과 카드 ③의 ‘의도’를 모두 맞게 쓴 경우 [30점]
	✓ 카드 ⑦의 ‘표현 방법’과 카드 ③의 ‘의도’ 중 한 가지만 맞게 쓴 경우 [20점]
	✓ <조건>에 맞지 않게 쓴 경우 [5점씩 감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매체 자료의 효과

간단 복습 문제

본문 37쪽

쪽지 시험	01 ○	02 ×	03 ○	04 목적	05 내용
	06 ㉠	07 ㉡	08 ㉢	09 ㉣	10 ㉤
여위 시험	01 지층	02 피해	03 대비하지	04 ㉥	
	05 ㉦	06 ㉧			

- 02 그림이나 사진은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특성이 있다.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구조화하여 전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 주는 것은 표나 그래프의 특성이다.
- 05 강연을 듣는 이는 강연에 활용된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매체 자료가 강연 내용을 잘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다.
- 02 ‘피해’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손해를 입음. 또는 그 손해’의 뜻이고, ‘파괴’는 ‘조직, 질서, 관계 따위를 와해하거나 무너뜨림.’의 뜻이다. 제시된 문장은 눈사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뜻이므로 ‘피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03 ‘대비하지’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지’의 뜻이고, ‘대피하지’는 ‘위험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피하지’의 뜻이다. 제시된 문장은 갑작스러운 화재의 위험을 많은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대피하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예상 격률 소 단 원 평가

본문 38~39쪽

01 ①	02 듣는 이가 강연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03 ②	04 ④	05 ⑤	06 ②	07 ④	08 ④

- 01 강연 순서를 보면, 1~3에서 지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지진의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연은 만약에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강연의 제목으로는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이 가장 적절하다.

02 서술형 (가)는 강연의 시작 부분이다. 강연자는 (가)에서 자신이 본 지진 관련 영화의 포스터를 제시하면서, 듣는 이의 흥미를 끌어 강연 주제인 지진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고 있다.

03 ㉠은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과 그 원인을 보여 주는 동영상으로, 강연 중에 제시되어 분위기를 환기하고 듣는 이가 지진의 발생 과정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그러나 이 동영상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짐작하게 하지는 않는다.

04 (다)는 장소에 따른 지진 대처법을 표로 정리한 것으로, ㉡와 ㉢은 각각 건물 안, 건물 밖에 있을 때 지진이 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나타내고 있다.

05 강연에 활용되는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그 매체 자료가 강연의 장소와 시간, 듣는 이, 그리고 목적에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 매체 자료는 듣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지만, 강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답풀이 ①, ② 듣는 이는 강연자가 매체 자료를 적절한 부분에 제시하는지, 내용을 잘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③, ④ 강연에 활용되는 매체 자료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그 매체 자료가 강연 장소에 적합한지, 듣는 이를 고려한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

06 (가)~(다)에서는 지진의 발생 원인과 지진의 피해, 그리고 지진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과 관련된 내용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07 (가)에서 지층은 여러 퇴적물이 오랫동안 층층이 쌓이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층에 큰 힘이 작용하면 그 힘을 견디지 못한 지층이 끊어진다고 하였다.

08 ㉠은 사진, ㉡은 그림으로, 이와 같은 시각 자료는 대상의 모양이나 위치 등과 같이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특성이 있다.

오답풀이 ①, ② 대상을 구조화하거나, 대상의 양상 및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은 표나 그래프의 특성이다. ③, ⑤ 상황이나 사건, 대상의 움직임을 보여 주는 것은 동영상으로, 운동 경기 장면이나 춤 동작과 같은 내용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40~41쪽

1단계 **01** 주제 **02** (나), (다) **03** (라) **04** 불의 고리 **05** 오늘, 것입니다.

2단계 **06** (듣는 이가)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과 원인을 쉽게 이해하게 한다. **07** ㉠은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실감 나게 느끼게 하므로, 지진의 피해를 설명한 (나)의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 **08** • 내용: 지진 발생 지역이 나타나 있다. / • 효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해 준다.('불의 고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쉽게 이해하게 한다.)

3단계 **09** ㉡에는 찾아오는 길이 글로만 제시되어 학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에는 찾아오는 길이 약도로 제시되어 학교의 위치를 파악하기 쉽다. 이는 약도와 같은 시각 자료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1단계

01 이 강연에서는 강연자가 지진을 주제로 하여, 지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을 설명하고 있다.

02 제시된 내용은 시각 자료인 사진과 그림의 특성이다. (나)에서는 지진 피해 사진을, (다)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나타내는 그림을 활용하고 있다.

03 (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실내에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04 (다)에서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인 환태평양 조산대를 설명하면서, 그림(지도)에서 그 부분을 가리켜 이 지역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불의 고리'로 불린다고 소개하고 있다.

05 (마)에서 강연자는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강연 내용을 잘 기억하여 지진이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단계

06 (가)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과 지진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상을 제시하면서 지진의 발생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듣는 이의 이해를 도우려 하고 있다.

07 ㉠은 네팔의 어느 마을이 지진으로 무너진 모습과 일본의 해안 마을이 해일에 휩쓸리는 모습의 사진으로, 지진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 이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설명하는 (나)의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8 (다)에서는 세계 지도의 그림을 제시하면서 지진 발생 지역을 표시해 놓은 지도라고 하였다. 강연자는 이 그림을 통해 지진이 자주 일어나거나 일어나기 쉬운 지역과 '불의 고리' 지역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면서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단계

09 ㉡에는 찾아오는 길이 글로만 제시되어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에는 찾아오는 길이 약도로 제시되어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다. 그래서 학생이 ㉡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는 당황한 표정을, ㉢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는 밝은 표정을 지은 것이다. 이를 통해 건물의 위치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우며 약도와 같은 시각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줄글과 그림이 주는 효과의 차이점과 시각 자료의 특성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와 ㉢에 제시된 '찾아오는 길'의 차이점과 시각 자료의 특성을 모두 맞게 쓴 경우 [30점]
	✓ ㉡와 ㉢에 제시된 '찾아오는 길'의 차이점과 시각 자료의 특성 중 한 가지만 맞게 쓴 경우 [15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② 06 지층
07 ① 08 ⑤ 09 ③ 10 ④ 11 그림으로 제시된 <보
기>가 더 효과적이다. (마)처럼 긴 줄글을 읽는 것보다 내용을 더 빠
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④ 13 ③ 14 ⑤

01 (가)는 비슷한 문장을 나열한 인상적인 광고 문구와 그것을 형상화한 사진을 제시하여, 스마트폰 중독을 경고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는 사진과 글을 활용한 광고문으로 인쇄 매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시청각 자료로 표현하지 않았다.
③, ⑤ (가)는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 잡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였으며, 사람의 얼굴을 다 보여 주지 않고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드러내지 않았다.
④ (가)는 사진의 한쪽이 아니라 중간에 글자를 배치해 사진과 글의 균형을 맞추었다.

02 (나)는 블로그 글로 인터넷 매체에 해당한다. 인터넷 매체는 정보가 그물망처럼 얹혀 있어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03 (나)에서는 스마트폰 노안 검사 표를 제시하여 읽는 이가 자신의 눈 건강을 점검해 보게 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노안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연재할 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치료와 예방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4 ㉠은 일상에서 사람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사이버 불링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고, ㉡는 가상 공간에서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과 ㉡ 모두 가상 공간이 법의 처벌로부터 자유롭다는 특성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상 공간에 유포하는 행위도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③, ④ ㉡는 핵심 내용을 담은 문장을 제시하면서 글자 모양과 굵기에 변화를 주어, 읽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하고 있다.

05 (가)에는 ‘지진’이라는 강연 주제는 나타나지만, 강연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가)에 나타나지 않은 이 강연의 목적은 지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 오답 풀이** ①, ③ (가)는 강연의 ‘처음’ 부분으로, ‘행복 중학교 2학년 3반 학생’이라는 듣는 이와, ‘○○ 소방서에 근무하는 △△△’이라는 말하는 이가 나타난다.
④, ⑤ (가)에서 말하는 이는 가벼운 인사말로 자신을 소개하고, 듣는 이와 또래인 딸과 함께 본 영화와 딸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듣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06 **서술형** (나)에서는 진흙, 모래, 자갈과 같은 여러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지층에 큰 힘이 계속 작용하면 지층이 끊어지고, 그 과정에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인 지진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07 (다)에서는 지진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 뒤에서는 지진이 발생하면 지상 및 지하 구조물이 붕괴되거나 해일과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 다리와 도로, 항구, 산 등의 모습이 담길 것이다.

08 건물 밖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면 전신주, 자판기, 벽돌담 등 넘어지기 쉬운 사물 옆은 피해야 한다. ㉠~㉣는 모두 건물 안에 있을 때의 지진 대처법에 해당한다.

09 (다)에서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설명하고 있다. 산사태와 해일은 지진의 원인이 아니라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해당한다.

10 제시된 자료는 활화산과 판의 경계,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한 지진대 분포 양상을 나타낸 지도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지진 발생 지역과 ‘불의 고리’를 설명하는 (라)에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11 **고난도 서술형** (마)는 줄글, <보기>는 그림으로 지진 대처법을 제시하고 있다. <보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림이 줄글보다 더 즉각적이고 빠르게, 그리고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다.

평가 목표	자료의 제시 방법 평가하기
채점 기준	✓ <보기>가 더 효과적인 까닭을 내용 이해 측면에서 바르게 쓴 경우 [상]
	✓ <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썼지만, 그 까닭을 내용 이해 측면에서 쓰지 못한 경우 [중]
	✓ <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썼지만, 그 까닭을 쓰지 못한 경우 [하]

12 (가)의 사진은 사람과 스마트폰이 서로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광고 문구가 담고 있는 내용을 사진으로 구현한 것이므로, (가)의 광고 문구와 사진은 내용상 서로 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13 제시된 개요에 따르면 (다)는 ‘처음’, (라)는 ‘끝’ 부분이므로, (다)와 (라) 사이에는 ‘가운데’에 해당하는 지진에 관한 여러 정보들이 제시될 것이다. 그런데 지진은 인간의 힘으로 예방할 수 없는 자연재해이므로, ‘가운데’ 부분에서 지진을 예방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14 (다)에서 강연의 듣는 이는 ‘행복 중학교 2학년 3반 학생’이다. ㉠은 말하는 이의 딸로, 강연자는 듣는 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듣는 이와 또래인 딸을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통 노안은 노화 현상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눈 건강에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② 거북목 증후군은 스마트폰 노안의 합병증 중 하나로,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생길 수도 있는,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증세를 말한다.
③ ㉠은 스마트폰 노안의 합병증에 관한 의학적 내용을 담은 동영상이다. 글쓰이는 전문적인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어,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④ (다)에서 말하는 이는 가벼운 인사말로 강연을 시작하며 자신을 ㉡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4 새롭게 보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1] 문학 작품의 재구성

간단 복습 문제

본문 47쪽

- 꼭지 시험 01 보편적 02 평등한 03 × 04 ○ 05 ○
06 ⊕ 07 ⊖ 08 ⊕ 09 ⊖
어휘 시험 01 어전 02 계계승승 03 금수 04 통분하지
05 순행하며 06 남루하다는 07 심산 08 ⊖ 09 ⊖
10 ⊕

01 「춘향전」은 인간의 보편적 정서인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어서, 시대를 넘어선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오늘날까지 계속 재구성되고 있다.

03 만화는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표현한 그림이나 인물의 대사를 담은 말풍선으로 심리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인물의 심리를 상세하게 서술할 수 있는 갈래는 소설이다.

09 ‘본관 사또’의 “어,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달아라. 물 마르다 목 들어라.”라는 말에는 낱말의 위치를 바꾸어 말하는 언어유희가 나타난다.

05 ‘순행하며’는 ‘감독하거나 단속하기 위해 돌아다녀’의 의미이고, ‘대령하며’는 ‘윗사람의 지시나 명령을 기다리며 또는 그렇게 하며’의 의미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왕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다니면서 살핀다는 뜻이므로 ‘순행하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7 ‘수청’은 ‘아녀자나 기생이 높은 벼슬아치에게 몸을 바쳐 시중을 들던 일’이라는 의미이고, ‘심산’은 ‘속셈’이라는 의미이다. 제시된 문장에서는 탐관오리들을 혼내 주려는 속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이므로 ‘심산’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예상 적중 소단원 평가

본문 48~49쪽

- 01 ① 02 ④ 03 ③ 04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린다. /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려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한다. 05 ③
06 ⑤ 07 ② 08 효과선을 넣어 ‘춘향’의 시선과 놀란 표정을 강조한다.

01 이 글은 작품 밖 서술자가 신과 같은 입장에서 인물의 심리와 사건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인 소설이다.

02 〈보기〉에서는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대사를 딱딱한 글자체로 제시하고, 날카로운 말풍선 모양을 사용하여 장면을 극대화하고 있다.

03 (라)에서 ‘본관 사또’ 역시 침착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관리들처럼 암행어사 출두에 혼비백산하여 말의 순서까지 바뀌어 말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므로, 만화에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해야 한다.

04 서술형 [A]는 ‘몽룡’이 일부러 나서서 읍은 한시로, 사치스러운 잔치를 벌이며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지배층의 횡포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05 천한 신분인 기생의 딸로 양반을 사랑하고 혼인까지 하게 된 ‘춘향’은 신분의 격차가 존재했던 조선 후기에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당시 백성들의 소망이 투영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06 두 번째 칸의 말풍선 속 ‘향단’에게 전하는 말은 모두 ‘춘향’의 말이다. 이 장면에서는 ‘춘향’의 말과 ‘몽룡’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여, ‘춘향’의 말을 들은 ‘몽룡’이 ‘춘향’의 변하지 않은 마음을 확인하고 흡족해함을 표현하고 있다.

07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하면 그림과 말풍선 등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읽는 이의 흥미를 끌 수 있다(ㄱ). 또한 칸과 칸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무엇인지 원작과 비교해 보며 유추하는 재미도 줄 수 있다(ㄷ).

08 서술형 ㉠의 효과선은 ‘어사또’가 ‘몽룡’임을 알고 놀란 ‘춘향’의 시선과 표정을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준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50~51쪽

- 1단계 01 (다) 02 갈비 한 대 먹으시다. 03 반어 표현
04 서술자 05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

2단계 06 ‘변 사또’는 눈치가 없고 아둔하나, ‘운봉’은 눈치가 빠르다. 07 탐관오리의 사치와 백성들의 고통을 대비함으로써,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한다. 08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지배 계층이 허둥대며 도망치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3단계 09 신분제 사회에서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인 ‘몽룡’이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는 결말에는, 평등한 사회를 원했던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 10 이 작품의 ‘춘향’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중요시하지만, 〈보기〉의 ‘춘향’은 실리를 중요시한다. 이 중 현대인들에게는 실리를 중시하는 태도가 더 필요하다. 사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주며,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실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이 작품의 ‘춘향’은 지고지순한 사랑을 중요시하지만, 〈보기〉의 ‘춘향’은 실리를 중요시한다. 이 중 현대인들에게는 사랑을 중시하는 태도가 더 필요하다. 삭막해진 현대 사회 속에서 순수한 사랑은 큰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1단계

01 (다)의 암행어사 출두 이후 화려한 잔치 장소가 ‘본관 사또’를 정벌하는 장소로 바뀌면서 극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된다.

02 (가)에는 사람의 신체 일부인 ‘갈비’와 음식인 ‘갈비’의 소리가 똑같은 것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 있다.

03 ‘춘향’이 말한 ㉠의 대사는 ‘변학도’처럼 수청을 강요하는 ‘어사또’의 말에, 기가 막힌 ‘춘향’이 ‘어사또’도 ‘변학도’ 못지않은 부정한 권리라고 비꼬아 말하는 표현이다.

04 ㉡과 같이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자기 생각과 판단을 직접 드러내는 것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한다.

05 (나)~(라)에는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한시와 그들이 암행어사 출두로 벌을 받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이라는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06 (나)에서 시를 듣고도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볼 때 ‘변 사또’는 아둔하고 눈치가 없다. 반면 ‘윤봉’이 시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것은 ‘어사또’의 정체를 바로 눈치챘기 때문이다.

07 ㉢는 탐관오리의 사치를, ㉣는 백성들의 고통을 빚낸 표현이다. ‘어사또’는 (나)의 시에서 이와 같이 대비되는 의미의 시구를 제시함으로써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다.

08 (라)에서는 암행어사가 출두하자 체면을 중시하는 지배 계층이 엉뚱한 것을 듣고 허둥대는 모습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며 통쾌함을 준다.

3단계

09 이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신분제가 존재했던 조선 후기인데, <보기>에는 천한 신분인 기생의 딸인 ‘춘향’과 양반인 ‘몽룡’이 혼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볼 때, 당대 백성들은 평등한 사회를 갈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작품의 결말에 담긴 의미 파악하기
채점 기준	✓ <보기>의 결말에 담긴 백성들의 소망을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쓴 경우 [20점] ✓ <보기>의 결말에 담긴 백성들의 소망을 잘못 썼거나, 작품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어 쓰지 못한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10 이 작품의 ‘춘향’은 ‘몽룡’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지고지순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보기>의 ‘춘향’은 ‘몽룡’을 선택한 이유도 신분 상승 욕구 때문임을 밝히며 ‘변 사또’를 택해 자신의 실리를 챙기려 한다.

평가 목표	인물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채점 기준	✓ 이 작품과 <보기>의 ‘춘향’이 지닌 가치관 차이와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을 근거를 들어서 쓴 경우 [25점] ✓ 이 작품과 <보기>의 ‘춘향’이 지닌 가치관 차이를 비르게 밝히지 못했거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가치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경우 [15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2] 효과적인 표현을 담은 글

간단 복습 문제

본문 53쪽

꼭지 시험	01 속담	02 관용 표현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11 내밀었다
12 굴렀다	13 두드리며	14 ㉥	15 ㉦	16 ㉧	
어휘 시험	01 증명하다	02 자린고비	03 자반		

04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관용 표현의 각 낱말을 사전적 의미 그대로 해석할 경우,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11 ‘머리를 맞대다’는 ‘어떤 일을 의논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마주 대하다.’의 뜻이고, ‘머리를 내밀다’는 ‘어떤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다.’의 뜻이다.

12 ‘발을 구르다’는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해하다.’의 뜻이고, ‘발을 뺀다’는 ‘걱정되거나 애쓰던 일이 끝나 마음을 놓다.’의 뜻이다.

13 ‘배를 두드리다’는 ‘생활이 풍족하거나 살림살이가 윤택하여 안락하게 지내다.’의 뜻이다. ‘배를 쥐다’라는 관용 표현은 없으며, ‘배품을 쥐다’는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의 뜻이다.

01 ‘증정하다’는 ‘어떤 물건 따위를 성의 표시나 축하 인사로 주다.’의 뜻으로, ‘기증하다’, ‘증여하다’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낱말이다.

02 ‘자린고비’는 인색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있는 놈이 자린고비 노릇은 더 한다니까.”와 같이 쓰일 수 있다.

예상 적률 소 단 원 평가

본문 54~55쪽

01 ④	02 ⑤	03 ⑤	04 ③	05 ⑤	06 ②
07 하던 일을 그만두다. / 하던 일을 끝마치고 다시 손대지 않다.					
08 ④	09 발이 묶이다	10 ①, ⑤	11 ③	12 • 관용 표현: 침을 삼키(킨)다 / • 의미: 음식 따위를 몹시 먹고 싶어 하(한)다.	

01 속담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다. ④는 명언에 대한 설명이다.

02 ㉠에는 게으른 사람이 일하기 싫어 한 번에 많이 해치우려고 한다는 뜻의 ‘게으른 놈 짐 많이 진다’가, ㉡에는 아무리 큰 일도 작은 일로부터 비롯된다는 뜻의 ‘만 리 길도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늘게 내리는 비는 조금씩 젖어 들기 때문에 여간해서도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시작이 반이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그리 어렵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등잔 밑이 어둡다: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

03 <보기>의 학생은 자신을 내세우며 잘난 척을 하고 있으므로,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⑤의 속담을 들려줄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사람의 긴밀한 관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② 기본이 되는 것보다 덧붙이는 것이 더 많거나 큰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 몹시 고생을 하는 삶도 좋은 운수가 터질 날이 있다는 말
 - ④ 자기가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하여야 남도 자기에게 좋게 한다는 말

04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날까'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의미의 속담으로, 이를 재구성한 ③의 표현은 원인 없이 나타난 결과를 강조한 표현이다. 이는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 오답풀이**
- 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실패하는 경험이 쌓이면 이를 밑거름 삼아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말
 - ② 임툼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제쳐 놓고 떠돌고 간섭하면 집안일이 잘 안 된다는 말
 - ④ 열 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권하거나 꾀고 달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한다는 말
 - 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말

05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한 덩어리로 굳어져 하나의 낱말처럼 쓰이는 말로,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된다.

- 오답풀이**
- ① 관용 표현은 특정 사회나 언어 공동체에서 쓰이는 관습적인 언어 표현 방식으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 ②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된다.
 - ③ 관용 표현을 활용할 경우 생각이나 느낌을 참신하게 전할 수 있으나,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표현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 ④ 격언에 대한 설명이다.

06 ②의 '눈이 높다'는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는 뜻으로,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풀이**
- ①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
 - ③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꿰뚫다,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다.
 - ④ 시끄러운 소리나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다.
 - ⑤ 소리가 날카롭고 커서 듣기에 괴롭다,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07 **서술형** '손을 떼다'는 '하던 일을 그만두다.'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이다.

08 ㉠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의 뜻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이다.

09 **서술형**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은 '발이 묶이다'이다.

10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빈칸에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내용의 격언이나 명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11 '아까다 똥 된다'라는 속담은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이 글에서는 속담의 원래 뜻과 상반되는 주제를 담고 있다.

12 **서술형** (가)에서는 고구마를 먹고 싶어 하는 반 아이들의 모습을 '침을 삼키(킨)다'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해 표현하였다.

고득점

서술형 문제

본문 56~57쪽

1단계 01 ㉠: 속담, ㉡: 관용 표현, ㉢: 명언 02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03 귀 04 시간

2단계 05 '표현 ②'와 같이 속담을 활용하면 전하려는 바를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 / '표현 ②'와 같이 속담을 활용하면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할 수 있다. / '표현 ②'와 같이 속담을 활용하면 말에 재미를 더하여 상대방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등 06 • 속담: 우물에(보리밭에) 가 송충 찾는다 / 싸전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 / 급하면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등 • 교훈: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으니 성급하게 덤비지 말라. 07 ㉠은 '선 자리에서 발로 바닥을 힘주어 치다.'는 문장 본래의 의미(사전적 의미)로 쓰인 것이지만, ㉡은 '매우 안타까워하거나 다급하다.'는 뜻의 관용 표현으로 쓰인 것이다. 08 • 관용 표현: 발이 넓다 / • 의미: 사귀어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 09 포기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야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3단계 10 ㉠은 속담, ㉡은 명언으로 둘 다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속담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하지 않지만, 명언 대부분은 처음 그 말을 한 사람이 분명하다는 차이가 있다. 11 속담 '아까다 똥 된다'를 재구성하여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속담 '아까다 똥 된다'를 활용해 속담의 원래 뜻과 상반되는 주제인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사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단계

01 ㉠의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며, ㉡의 '나 몰라라 하다'는 관용 표현이다. ㉢은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와 널리 알려진 말인 명언이다.

02 <보기 1>은 주말에 만나서 뭐 할지에 대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어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는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로 표현할 수 있다.

03 귀에 익다: 들은 기억이 있다, 어떤 말이나 소리를 자주 들어 버릇이 되다. / 귀를 열다: 들을 준비를 하다. / 귀가 가렵다: 남이 제 말을 한다고 느끼다. / 귀가 아프다: 너무 여러 번 들어서 듣기가 싫다.

04 제시된 격언과 명언은 모두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2단계

05 '표현 ②'는 '표현 ①'의 의미를 지닌 속담이다. '표현 ②'와 같이 속담을 활용할 경우 내용을 인상적으로 전하거나, 전하려는 바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등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

06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보기>의 '아이'는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비고 있다.

07 ㉠은 낱말 본래의 뜻으로 쓰였으나, ㉡은 원래의 뜻과는 다른 관용 표현으로 쓰였다.

08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발이 넓은'이다. 이는 아는 사람이 많아 활동하는 범위가 넓다는 의미이다.

09 여우는 포도를 따려고 한 번 시도해 본 후 뜻대로 되지 않자 쉽게 포기하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은 꿈을 이루기까지 여러 번의 시련이 다르므로 좌절하지 말라는 교훈을 담은 명언이므로, 여우에게 포기하지 말고 노력하라는 의미를 전할 수 있다.

3단계

10 ㉠은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의 속담이며, ㉡은 노력과 도전을 강조하는 명언이다.

평가 목표	속담과 명언의 차이점 이해하기
채점 기준	✓ ㉠과 ㉡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15점]
	✓ ㉠과 ㉡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차이점을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11 속담 '아끼다 똥 된다'는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끝글이는 이 속담을 재구성해 모든 것을 아끼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상반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평가 목표	표현상의 특징을 주제와 관련지어 파악하기
채점 기준	✓ ㉠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조건>에 맞게 쓴 경우 [15점]
	✓ ㉠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를 썼으나 <조건>에 맞지 않은 경우 [10점]
	✓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1점씩 감점]

예상 격률 대단원 평가

본문 58~60쪽

- 01 ④ 02 ⑤ 03 ④ 04 큰 소리로 날카롭게 들리는 듯한 말의 느낌을 살리고, '암행어사 출두'라는 중심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05 ④ 06 ② 07 (다)와 <보기>에서는 '어사또(몽룡)'와 재회한 '춘향'의 감격스러운 심정을 강조한다.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춘향'의 상황과 감정을 드러냈지만, <보기>에서는 대사를 절제하여 표현하였다. 08 ② 09 ⑤ 10 ⑤ 11 ④ 12 귀를 기울인(이)다 13 ⑤ 14 ②

01 원작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형식, 관점, 주제의 변화 등에 따라 얼마든지 생략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말풍선 속의 느낌표는 '몽룡'의 시를 들은 사람들이 그가 심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놀란 상황임을 표현한 것이다.

03 (나)에서 하늘만 그려 놓은 칸은 사건이 일단락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암행어사 출두로 시끌벅적했던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04 서술형 (나)에서는 "출두야!"라는 말풍선의 형태와 글자 크기의 변화를 통해 중심 사건인 '암행어사 출두'를 강조하고 있다.

05 (가)에서는 느낌표를 강한 색과 날카로운 모양의 말풍선을 통해 제시하여, '어사또'의 수청 요구를 들은 '춘향'의 어이없는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06 (나)~(라)는 고전 소설 '춘향전'이다. 고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전형적 인물이며,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

07 고난도 서술형 (다)와 <보기>는 '어사또(몽룡)'와 재회한 '춘향'의 기쁨이 나타난 부분으로, (다)에서는 '춘향'의 속마음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보기>에서는 이를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평가 목표	중심 내용과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채점 기준	✓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표현상의 차이점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표현상의 차이점 중 하나만 바르게 쓴 경우 [중]
	✓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와 표현상의 차이점 모두를 바르게 쓰지 못한 경우 [하]

08 ㉠은 '춘향'에게 다친 시련을 뜻한다. ㉡ 역시 '변학도'의 횡포를 뜻하므로 '춘향'의 시련으로 볼 수 있다.

09 조상들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말로, 고유한 우리말 표현이 살아 있는 것은 속담이다.

10 <보기>의 상황은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뜻하는 속담인 ㉡로 표현할 수 있다.

11 속담 '우물에 가 송냥 찾는다'는 일의 순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12 서술형 '귀를 기울이다'는 '남의 이야기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모으다.'의 의미를 지닌 관용 표현이다.

13 <보기>는 잘 알려진 속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를 활용하여 친숙한 느낌을 주고, 설명하기 복잡한 상황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다.

14 '배를 불리다'는 '재물이나 이득을 많이 차지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다.'를 뜻한다.

- 01 ① 02 ③ 03 ① 04 ② 05 편지 06 ⑤
 07 ③ 08 서술자가 '나'에서 '아버지'로 바뀌었다. 09 ③
 10 ⑤ 11 ④ 12 ④ 13 ④ 14 ⑤ 15 ②
 16 ㉠: 사람이 서 있는 모양, ㉡: 초출자 17 ② 18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19 ② 20 ③ 21 ⑤
 22 ② 23 어법에 맞게 적는다. 24 ④ 25 '알' → '안',
 '안었다' → '알았다' / '안'과 '알' 대신 '아니', '아니하-'를 넣어 보
 면 된다. 26 ⑤

-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로, 주인공의 시점에서 사
 건을 해석하여 서술하고 있다.
- 02 '아저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며 가족들을 꼼짝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저씨'의 억살스러운 성격이 드러난다.
- 03 이 글은 일가인 '아저씨' 때문에 갈등을 겪는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일가친척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현대 사회상을 비판하
 고 있다. 이 글에서 이웃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 04 '나'는 사춘기 청소년으로, '아저씨'가 집에 찾아오면서 생긴
 사건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게서 '아저씨'와 '엄
 마'의 갈등을 증대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 05 **서술형** '나'는 '미옥'에게서 편지를 받았지만 이것을 '엄마'에
 게 빼앗겼고, '아버지'는 '엄마'의 이러한 행동을 '갈취'라고 표
 현하였다. 이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는 싸우게 된다.
- 06 (나)에서 '나'는 '엄마'를 지나치게 슬프게 만든 '아버지'에게 반
 항하고자,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는데도 모른 척한다.
- 07 지금의 '나'는 '미옥' 때문에 울었던 작년과 달리, '아저씨'의 외
 로움을 이해하며 눈물을 흘림으로써 성장했음을 보여 준다.
- 08 **서술형** 이 글은 서술자가 사춘기 소년인 '나'이지만, <보기>
 에서는 서술자가 '아버지'로 달라지면서 글의 내용이나 분위
 기가 다르게 전달된다.
- 09 '나'가 '아저씨'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나'가 '아저
 씨'의 외로움에 공감하는 정신적 성장을 보여 주어(ㄷ), 현대
 사회의 가족 이기주의를 극복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ㄴ).
- 10 이 시의 화자는 어른으로, 순수함을 지닌 아이 '민지'와의 만
 남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
- 11 '나'는 '민지'의 순수함을 지켜 주고 싶고, 세상의 때가 묻은 자
 신의 생각이 부끄러워서 '그건 잡초야'라고 말하지 못했다.
- 12 '민재'는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해하고 있으므로, '오히
 는 이러한 '민재'의 감정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
-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상대가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도
 록 상대의 말을 요약정리하는 적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한다.
- 14 '자주정신'은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려는 마음이
 다. 따라서 우리말과 중국어의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말을 표기
 하기 위한 한글을 만들었다는 데서 자주정신을 느낄 수 있다.

- 15 <보기>는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본떠 만드는 상형
 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상형의 원리를 이용한 기본 글자는
 'ㄱ, ㄴ, ㄴ, ㅁ, ㅂ, ㅅ, ㅇ'의 다섯 글자이다.

- 16 **서술형** 모음의 기본자 중 'ㅣ'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 그리고 기본자를 한 번 합성하여 만든 모음 'ㅏ, ㅑ,
 ㅓ, ㅕ'는 초출자라고 한다.

- 17 ㉠은 풀어쓰기 방식으로, ㉡는 모아쓰기 방식으로 문장을 쓴
 것이다. ㉠에 비해 ㉡가 문장을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고(ㄱ),
 단어나 문장의 뜻도 더 빨리 이해된다(ㄷ).

- 18 **서술형** 한글 모음은 대부분 한 글자가 하나의 소리로 발음되
 는 반면, 로마자의 모음은 한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발음될
 수 있다. 이처럼 한글은 문자와 소리가 일치하여 기계 번역이
 나 음성 인식 등에 유리하다.

- 19 '두'는 'ㄴ, 가획, ㅡ, ㅏ, 합성'으로 분석해야 한다.

- 20 제시된 상황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의 잘못된 발음 때문에 그
 의 말을 다르게 알아들었다. 이처럼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려
 면 표준 발음을 사용해야 한다.

- 21 겹받침 'ㅃ'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두 번째 받침의 대표음
 [ㅃ]으로 발음되므로, '울조릴'은 [음조릴]로 발음해야 한다.

- 22 '의리'의 '의'는 단어의 첫음절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
 지 않고 조사가 아니므로 [의:리]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답 풀이

- ①, 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나'이므로 '띄어쓰
 기'는 [띄어쓰기/띄여쓰기]로, '희망'은 [희망]으로 발음한다.

- ③ '협의'는 단어의 첫음절 이외에 '의'가 쓰였으므로 [허비/허비로
 발음한다.

- ④ '우리의'의 '의'는 조사이므로 [우리의/우리에]로 발음한다.

- 23 **서술형** ㉠처럼 쓰면 '꽃'이라는 한 단어를 여러 형태로 적게
 되어 뜻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처럼 어법에 맞게 적는
 것이다.

- 24 '맞는 답을 내놓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맞히다'이다.

- 25 **고난도 서술형** '안'은 '아니'가, '않'은 '아니하-'가 줄어든 말이
 므로 '안 좋아하는데', '지워지지 않았따'가 옳은 표기이다. 줄
 어든 말 대신 원래의 말을 넣어 보면 옳은 표기를 알 수 있다.

평가 목표	'안'과 '않' 구별하기
채점 기준	✓ 잘못 쓴 단어를 바르게 고치고, 구별 방법을 바르게 쓴 경우 [상]
	✓ 잘못 쓴 단어를 바르게 고쳤으나, 구별 방법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 잘못 쓴 단어를 바르게 고쳤으나, 구별 방법을 못 쓴 경우 [하]

- 26 받침 'ㅎ'은 그 뒤에 'ㄷ'이 결합될 경우에 합쳐서 [ㅌ]으로 발
 음한다. 그래서 '낱다'는 [나:타]로 발음한다. 그런데 받침 'ㅎ'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낱아'는 [나아]로 발음한다.

- 01 ③ 02 ② 03 청소년들도 스마트폰 노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04 ③ 05 ① 06 ④
07 ③ 08 문제점(심각성) 09 ① 10 ③ 11 ①
12 듣는 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13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 14 ④ 15 ⑤ 16 ②
17 지배 계층의 허동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한다. 18 ⑤
19 ⑤ 20 ③ 21 머리 22 ② 23 ① 24 ㉠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뜻이지만, <보기>의 밑줄 친 말은 가야 하는 길이 멀다는 뜻이다. 25 ④

- 01 (가)와 (나)는 큰 광고 문구의 유무로 차이가 있으나, 둘 다 사진과 문자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진만으로 독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 02 (다)는 노안의 개념을 밝히고, 최근 젊은 세대에 노안 환자가 증가하는 경향과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노안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 03 **서술형** 제시된 그래프는 대상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 역시 노안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04 전문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책이나 논문과 같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 05 (다)~(라)는 스마트폰의 장단점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인한 노안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 글이다.
- 06 (라)에서 글쓴이는 스마트폰 노안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표를 제시하여 읽는 이가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눈 건강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 07 이 매체는 주요 쟁점을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 자료와 간략한 글로 정리한 카드 뉴스로, 청각 정보는 제시하지 않는다.
- 08 **서술형** 이 카드 뉴스는 사이버 불링의 개념과 문제점, 사이버 불링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9 강연에서는 내용, 목적에 맞는 매체 자료를 활용해야 할 뿐, 자료를 청중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10 이 강연에서는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11 (가)에서 소개한 영화의 제작 후기는 지진에 관한 정보와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다룬 이 강연의 주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
- 12 **서술형** 강연자는 ㉠에서 듣는 이가 알 법한 사건을 소개하여 주의를 집중시키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 13 **서술형** (가)~(다)에는 '몽롱'의 시를 들고 그의 정체를 눈치챈 사람들과, 어사출두 후 도망치는 수령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로써 탐관오리에 대한 응징이라는 주제가 드러난다.
- 14 (나)는 '어사또'의 등장을 예감한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는 장면으로, 비장한 분위기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15 (가), (다)에는 조선 후기 당시 사회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비현실적이며 초월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6 소설을 만화로 재구성할 때는 갈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원작의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17 **고난도 서술형** (다)는 어사출두 후 수령들이 도망치는 부분이다. 이를 제시된 만화로 재구성하면서 지배 계층이 허동대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하여 그들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있다.

평가 목표	작품의 재구성 양상 이해하기
채점 기준	✓ 작품 재구성 시 고려한 사항을 <조건>에 맞게 쓴 경우 [상]
	✓ 작품 재구성 시 고려한 사항을 썼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중]
	✓ 작품 재구성 시 고려한 사항을 <조건>에 맞게 쓰지 않은 경우 [하]

18 (라)에서는 글 상자를 통해 '춘향'과 '어사또'의 이후 이야기를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19 <보기>의 밑줄 친 표현은 속담으로, 조상의 지혜와 교훈이 담긴 말이다. ㉠은 관용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20 제시된 상황은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뜻의 속담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대상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리어 대상에 대하여 잘 알기 어렵다는 말이다.
②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④ 주관하는 사람 없이 여러 사람이 자기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⑤ 교양이 있고 수양을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하고 남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1 **서술형** 제시된 뜻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은 '머리를 굽히다', '머리 위에 앉다'이다.

22 ㉠은 실천의 힘과 노력을 강조한 말로, 친구처럼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한 '나'에게 적절한 명언이다.

23 ㉠에는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침체되지 않고 계속 발전한다.'는 뜻의 속담이, ㉡에는 '물건을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는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됨'을 뜻하는 속담이 적절하다.

24 **서술형** ㉠은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여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관용 표현이고, <보기>의 밑줄 친 말은 관용 표현이 아니다.

25 ㉠은 '웃음을 참지 못하여 배를 움켜잡고 크게 웃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그러나 ㉡에는 관용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발 빠르다: '알맞은 조치를 신속히 취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② 손 떼다: '하던 일을 그만두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③ 눈 돌리다: '관심을 돌리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
⑤ 손 내밀다: '도움, 간섭 따위의 행위가 어떤 곳에 미치게 하다.'라는 뜻의 관용 표현이다.